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하고 전쟁과 테러가 난무하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23)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12월 12일 (토) 제 156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자생적 테러” 현실화... 전 세계로 확산!

#### 세계 언론, 샌버너디노 총격 사건 해석 및 향후 동향 보도

테러와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싸움은 새로운 세계전쟁이 될 것”이라는 등의 걱정스런 예언은 현실이 되어간다. 어쩌면 두 차례의 세계대전보다 더 무서운 전쟁인지 모른다. 전선이 따로 없고, 적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전쟁은 훨씬 두렵다. 공연장에서, 식당에서, 공원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언제 어디든 지나가는 평범한 이에 의해 살상이 일어날 수 있는 현실로 인해 일상은 공포가 된다. 파리 테러와 그리고 미국 샌버너디노, 영국 런던 지하철 역 테러들에서 그 공포가 현실이 됐

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파리 테러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IS를 추종하는 '외로운 늑대'(본지 6면 참조)의 소행으로 보이는 테러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에 새로운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외로운 늑대의 자생적 테러는 정보당국이 감행시점이나 방식을 예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대응방안 마련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IS, 전세계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에게 이상향 등극

지난 5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런던 동부 레이턴스톤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불특정 다수에게 칼을 휘두르는 무차별 '흉기 테러'를 저질러 3명이 부상했다. 가디언은 이 남성이 범행 당시 "시리아를 위해서"라고 외치는 것을 목격자들이 들었으며, 이번 범행이 시리아 공습에 나선 영국 정부를 겨냥한 IS 추종자의 테러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리처드 윌턴 런던경찰 대테러본부장도 사건 직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IS를 추종하는 '외로운 늑대'의 소행으로 보이는 테러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에 새로운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 총기난사 사건 역시 자생적 테러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CNN에 따르면 부부 부로 알려진 범인들 중 여성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가명으로 올린 글에서 IS의 수괴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에게 충성서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IS를 지지하는 외로운 늑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CNN과 인터뷰를 한 미국 관리도 "이번 일이 자생적으로 극단화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IS의 라디오 선전조직 알바얀은 이날 인터넷 동영상 통해 "우리를 추종하는 이들이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의 한 시설을 공격했다"며 "그들을 순교자로서 신이 받아 주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AP통신은 IS가 이번 성명에서 두 범인을

'추종자'라고 말했다며, 이는 IS가 직접 공격을 지시한 테러범을 '칼리파의 전사' 또는 '무자헤딘'이라고 칭하는 것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IS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인들이 자신들에게 충성서약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선전·선동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외로운 늑대가 저지르는 범행의 경우 정보당국의 추적이 어려워 제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S가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더라도 이념적으로 영향을 받은 추종자들이 미국 곳곳에서 대형 테

러를 저지를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연방 정부의 테러 감시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 내 테러 가능성에 대해 "IS가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밝힌 바라크 오바마 미 대통령이 곧 폭스러운 처지에 놓였으며 미국 대테러 대응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6일 저녁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직접 테러대책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3면으로 계속)

### 문화적 요소에 원하는 의미부여

#### 뉴스위크, “헝거게임” 대중문화 아이콘이 세계 시위대에 영감 주는 현상 보도

영화에 나오는 제스처를 현실에서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 지난 11월 19일 태국에선 총리가 연설하는 자리에서 항의의 표시로 한 손을 들고 '헝거게임'에 나오는 세 손가락 경례('12구역 경례')를 한 대학생들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런 제스처 금지의 분명 새로운 현상이다. 그러나 대중문화를 사회 변혁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많았다. 사회운동가들은 수 세기 동안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메시지를 음악이나 책, 영화에 담았다.

뉴스위크는 최근 개봉된 '헝거 게임' 완결편을 통해, 대중문화 아이콘이 어떻게 세계의 시위대에 영감을 주는지를 보도한다(China Blacklists Hunger Games Movie for Revolution Scenes).

#### 대중문화 한 단편이 실제로 혁명 기폭제 될 수도 대중문화, 사회운동에 대한 반응... 동기 되진 않아

텍사스 주 사우스웨스턴 대학의 정치학 교수 에릭 셀빈은 뉴스위크 지에 매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IB타임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상징이나 노래, 인물, 날짜는 거의 마법 같은 속성을 띤다. 대중문화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사회 변혁의 수단으로 현실과 결부시키면 놀라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헝거 게임' 시리즈는 억압 받는 민중을 이끌고 폭력적인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10대 소녀 캐니스 에버딘의 활약을 그렸다. 최신편 '헝거게임: 모킹제이(The Hunger Games: Mockingjay-Part 2)'는 최근 개봉됐지만 그 주제는 수 년 전부터 세계 전역의 시위대 구호로 활용됐다.

태국의 시위대는 지난 5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반기를 들며 목연의 저항을 상징하는 표시로 '헝거게임' 등장 인물들이 즐겨 사용하는 '12구역 경례'를 처음 채택했다. 그러나 당국은 그 제스처의 집단 사용을 금했다.

지난해 미국 오글라호마 주에서 프래킹(수압파쇄) 기술로 셰일가스를 추출하는 사업에 반대한 환경운동가들은 '헝거게임'의 상징 두 가지를 동시에 시위에서 사용했다. 시위대는 거대한 깃발

에 '헝거게임' 주인공의 별명인 '모킹제이'(Mockingjay, 가상의 새 이름) 그림과 영화에 등장하는 구호 '우리에겐 승산은 전혀 없다(The odds are never in our favor)'가 적힌 대형 깃발을 펼쳤다. 중국에선 당국이 '헝거게임: 모킹제이'의 개봉을 내년 1월 이후로 연기시켰다. 홍콩에서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처럼 여러 시위대는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헝거게임'의 주제를 차용한다. 그 영화가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혁명을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사실이 널리 잘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규합할 때는 시위의 명분과 목적을 정확히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영화에서 잘 알려진 등장인물이 자신들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혁명의 명분이 공감하기가 비교적 쉽다.

뉴욕 주 시라큐즈 대학에서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로버트 톰슨 교수에 따르면, 그 영화를 관람한 사람들은 혁명의 개념을 곧바로 파악하고 주변에 신속하게 퍼뜨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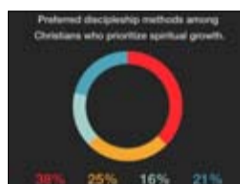
(3면으로 계속)

#### ATS 인가 온라인 100% 목회학 석사 (M.Div) 과정

성서학 학사 /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 / 목회학 박사  
기독교상담학 학사 / 석사  
유아교육, 가정상담 수료증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제자훈련의 결정적 요소는 "마음"의 문제

2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복음서 이야기 박시경 박사

14면



고난의 신학: 욕기에 대한 묵상 이승현 박사

16면

###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 “평신도를 깨운다”

#### 제 15기 제자훈련 체현학교

주강사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담임)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강사 강명옥 전도사, 박주성 목사, 김홍장 전도사  
일시 2016년 4월 18일(월) - 4월 23일(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상 현 이민 교회 담임목사 및 부교역자  
(담임목사 참가시 부교역자도 참석 가능)  
등록서류 신청서, 주부, 사진 1매  
등록마감 2016년 3월 21일(월)  
등록비 \$390(숙식 및 강의안 포함)  
등록처 국제제자훈련원(T.714 635 3000)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인 제자훈련의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제자훈련을 위한 이론과 방법을 몸으로 익히도록 돕는 Workshop입니다.  
강사 박주성 목사, 김홍장 전도사  
일시 2016년 4월 25일(월) - 4월 28일(목)  
대상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수료자  
등록비 \$250  
등록 마감 2016년 3월 21일(월)



# 제자훈련의 결정적 요소는 “마음”의 문제

## 바나리서치, 미국교회 제자훈련 현황과 상태 설문조사 결과 보도

제자훈련은 보통 교회에서 훈련사역의 핵심이며, 평신도 지도자 양육 프로그램으로 제자훈련의 기초와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정립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와 한인 교회 성장에 있어 제자훈련은 지금도 활발하게 교회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제다. 그렇다면 미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은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제자훈련에 치중하고 있는가? 또는 교인들이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등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투자하고 있는 지에 대한 통계나 자료가 미비했다. 이에 바나리서치는 네비게이트와 네비 출판사와 같이 미국교회 제자훈련 현 주소를 찾아갔다(New Research on the State of Disciple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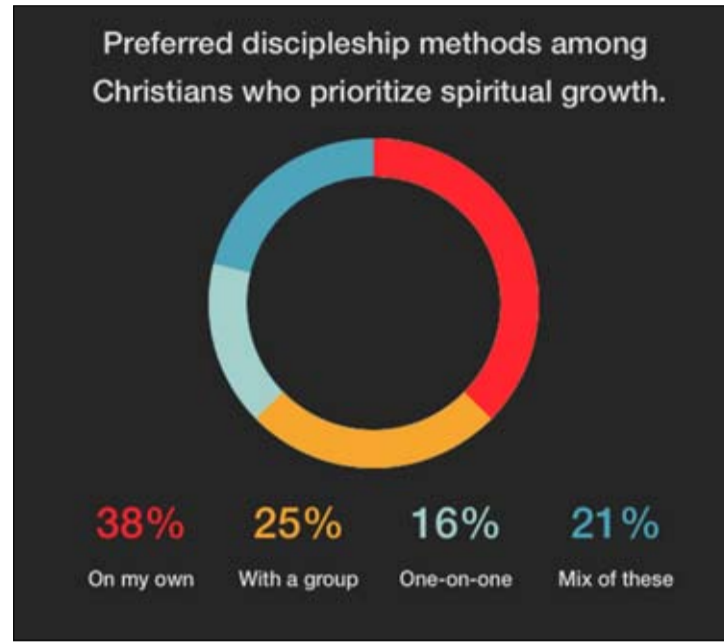
다른 36% 역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제자훈련 즉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실제 생활, 다시 말해서 삶의 현장에서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이번 설문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을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tool)”이 없고, 자기-측정이라는 방법이 주는 객관성 결여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리더들은 계속해서 영적 성장의 실재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이나 방법들을 찾아야만, 교인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만족하는 단계로부터 더 끌어내어 진정한 영적 성장으로 도울 수 있게 된다.

4. 제자훈련은 원랜 프로그램?

설문에 응한 참가자들 사이에



바나리서치가 이번에 발표한 미국교회 제자훈련 설문은 지난 해부터 여러 단계의 기초 작업들과 과정을 거쳐 실시했다.

신학교들과 성경대학 교수진들이 설문을 위한 질문들을 만들고 일선 목회자들과 선교단체들의 리더들이 역시 설문용 질문들을 만들어, 먼저 850명 정도의 목회자들에 전화와 온라인 설문을 벌였다. 그리고 미 전역에서 18세 이상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2,013명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설문을 통해 얻은 결과다.

### 1. 제자훈련의 정의

## “제자훈련=혼자 하는 영적훈련”으로 생각...삶속 모습은 만나타나 소그룹 모델이 가장 효과적...대형교회일수록 관계중시 모델 실시

미국 교회 교인들 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나 명목상의 교인들은 제자훈련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선호되어지는 개념이나 용어로, “더욱 더 예수처럼 되어지는 것(43%)”, “영적 성장(31%)” 그리고 “영적 여정(28%)”이었다.

또밖에도, “제자훈련”은 18% 정도가 많았고, 이어서 “성화”나 “영적 형성”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어 각종 활동들에 활발하게 참가하는 사람일수록 제자훈련을 예수처럼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영적 여정”이라는 말을 선호하고 있다.

### 2. 제자훈련의 운용과 실시 효율성

많은 교인들은 제자훈련이 교회에서 잘 운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6개월 동안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 중 52%가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고, 40% 역시 교회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자신들을 돕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목회자는 다른 목소리를 낸다. 불과 1%만이 새로운 신자와 젊은 세대를 제자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60%는 교회에서의 제자훈련이 그다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교회에서의 제자훈련은 한국교회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열정과 관심이 동반되어야 이뤄진다. 즉 ¼ 정도의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교회가 영적 성장과 성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영적 성숙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20%의 교인들만이 일련의 제자훈련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에 참가하고 있다. 주일 성경공부, 영적 멘토와의 만남, 그룹 성경공부 그리고 그룹 독서리

딩과 토론에 참가하는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 3. 제자훈련 효과: 성숙?

제자훈련을 통해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는 어려운 작업이다. 자기-측정이라는 척도로 볼 때,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영적 성장에 만족하고 있다. 36%가 자신들의 영적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서 가장 차이가 나게 응답이 었 같은 것은 바로 제자훈련의 방법이나 모델이었다. 즉 소그룹, 일대일 그리고 개인이 혼자서 하는 모델로 나누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영적 성장을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하다고 여기는 크리스천들 중 37%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자신만의 모델을 통해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41%의 응답자들 역시 영적 생활은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5면으로 계속)



## 시론

### 맺집을 키워라!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어린 시절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권투였다. 웬지 그 작은 사각 링에 들어가서 싸우는 선수들의 치열한 몸부림이 마음에 와 닿았다. 권투 선수들은 대개 가난했기 때문일까. ‘헝그리 복서’라는 말도 있을 정도였다. 일단 한번 시작하면 3분 종료 타종이 울릴 때까지 싸워서 이기든지 지든지 결판을 내야 하는 그 병축한 현실에 몸서리치는 만큼 스티일이 느껴졌다. 사각 링이 무서운 것은 도망가려고 해야 도망갈 수 없는 인생과 닮았기 때문이다. 때리든지 맞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1977년 11월에 파나마시티에서 열렸던 홍수환과 카라스키아의 WBC 챔피언 쟁탈전이었다.

홍수환은 2회 때 4번이나 다운을 당하고도 3회에 KO승을 거두어 4전5기의 신화를 이룩했다. 카라스키아의 강펀치를 맞고 쓰러진 홍수환이 정신을 가다듬은 다음에는 언제 두들겨 맞든 선수나 싶게 불도저같이 펀치를 몰아붙였고 3회 초반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당하게 승리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한 마디 하라는 아나운서의 말에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 한 마디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는 열광했던 기억이 새롭다. 홍수환은 맺집이 강한 선수였다. 강한 맺집은 강한 체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불굴의 정신력으로 인한 것이다. 아마도 그때 우리들에게 있는 지독한 가난을 몰아내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는 투지로 불타는 산업화의 도상에 있었기 때문에 홍수환의 승리가 더 마음에 와 닿았는지도 모른다.

얼마 전 어떤 목사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식에 다녀왔다. 조촐하게 치러진 장례식이었지만 많은 감동이 있었다. 향년 92세. 대부분의 그 연세의 어르신들이 질곡 많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어머니 역시 참 어려움이 많았다. 남편이 사업에 계속 실패하여 강원도 어느 화전민촌에서 오두막을 만들어 살았는데 무허가 단속반에게 행패를 당한 것부터 시작하여 그녀의 인생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 6남매를 잘 키워냈고 무엇보다 평생을 신앙심으로 살았다. 소천하기 직전에는 마지막으로 다니던 교회에 휠체어에 의지해서 나가서는 “나 먼저 천국 갈 테니 뒤따라오세요”라고 보는 이들마다 인사하고는 그 다음 주에 부르심을 받았다. 막내 사위가 조사를 맡아했는데 불교신자였던 자기를 사랑과 권면으로 대해 주시는 장모로 인해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간증 같은 회고 앞에서 조문객들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인사말씀에서 아들 목사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은 “맺집을 키워준 것과 인생에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었다는 의미 깊은 이야기를 했다. “어머님은 나의 맺집을 키워주셨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을 곱씹었다. 계속 얻어맞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지 않고 살아남아 승리하게 한 것이 홍수환의 맺집이었다면 그 목사의 삶 속에서 계속 되는 시련의 매를 맞으면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그의 어머니가 보여준 단단함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가 어떤 삶의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조금은 아는 나로서는 그 어머니가 키워준 맺집 때문에 아들의 오늘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넘어 부러움까지 몰려왔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내 어머니가 물려주신 맺집을 감사해 하는 아들의 마음을 묵상하였다. 우리가 잘 나가는 삶을 살 때는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삶이 오랫동안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 닥칠 때, 가족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노출될 때, 그리고 그런 아픔들이 끝도 없이 이어질 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맺집이다. 사역자에게 교회의 일들은 즐거움과 감격이다.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기심이니 감사가 넘친다. 일터가 있고 일감이 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성공적인 사역에는 단단한 맺집 또한 필수적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비유하신 4종류의 밭 가운데 옥토는 1/4에 불과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대개의 씨앗은 길가에 뿌러지고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에서 열매 없이 낭비된다. 이런 낭비들은 우리에게 끝없는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한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1:24). 사역은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괴로움의 수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맺집은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장례가 있던 날 우리 교우들의 비즈니스를 몇 군데 심방했다. 항상 그렇지만 모두 남의 나라에 와서 이만큼 자리 잡고 사업장을 펼치는 모습들에서 그날도 잔잔한 감동을 느꼈다. 그 가운데서 길고 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끝없이 주어지는 때를 견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 준 어떤 교우의 생업의 현장에 가서는 ‘인내하더니 이제 이렇게 결실을 보는구나.’ 하는 감격이 있었다. 나의 맺집이 단단한가? 맺집을 키워라. 그러면 일회일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만이 통련한다. 대가 없이 은퇴한 노후를 즐기는 원로들이 새삼 부러워진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p><b>· L.A. Office</b>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p>	<p><b>· N.Y. Office</b>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On Campus Courses**

**2016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7-11(3월 7 -11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14-18 (3월 14-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Feb 1-5(2월 1-5일)**  
DI 8500 Discerning God's Will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homas Stal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11-Mar 4 (1월 11일-3월 4일)**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 Seoul, Korea**

**Feb 15-19(2월 15- 19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현대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자생적 테러” 현실화...전 세계로 확산

(1면에서 계속)  
오바마 대통령이 오벌오피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는 것은 취임 이후 세 번째로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다.

한편 같은 뿌리에서 나오긴 했지만 지금의 IS는 알카에다와 다르다. 알카에다는 지하드, 즉 투쟁에 우선 집중한다. 지하드를 통해 먼저 미국 등 이방세력을 축출하고, 보수 정부를 붕괴시킨 후 언젠가 먼 미래에 이슬람 신정주의국가를 수립하려 했다. 반면 IS는 신정주의 정부부터 세웠다. 지난해 6월 29일,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아예 칼리프 국가를 선언했다.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크다. 전 세계에 흩어진 숭한 잠재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들에게 알카에다는 심정적 기반은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어딘가 먼 곳에 있는 추상적 존재였다.

반면 IS는 실체를 가진 국가, 즉 확고한 '기밀 곳'이었다. 그것도 영화로운 이슬람의 시대 632년 첫 칼리프국가 복원을 선언한 이라크의 무슬림들은 열광하기 시작했다. 테러를 기획, 실행하는 이들에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있다는 점은 완전히 다른 확신을 준다. 비록 몸은 파리, 런던 등 과거 식민제

국이었던 이방에서 이민자의 후예인 이슬람인으로 살지만, 조국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자신감이다.

지구촌 테러 전문가들은 IS가 국가를 수립하자, 앞으로 테러의 빈도, 강도 그리고 확산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 흩어진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에게 IS는 고국이자 이상향이 돼버렸다.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3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시리아로 이라크로 들어가 IS에 가담했다. 가담을 하지 못한 자생적 테러리스트들도 스스로 IS의 해외전사로 무기 시작했다. 알카에다가 9·11테러를 일으켰을 때도 없던 일이다. 미중유의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테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포의 확산' 그리고 '존재감의 표출'이다. 얼마 전 자신들을 공습하는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점령하겠다는 IS의 경고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선전선동이지만, 존재감을 드러내기엔 충분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그리고 영국, 프랑스 및 심지어는 러시아와 과감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 세계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을 격동시킨다. 결국 IS는 어떻게 해서든 시리아, 이라크 밖에서 테러네트워크 확산을 통해 자

신들의 존재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동조자들에 대한 연대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확산시키려 할 것이다.

9·11 이후 전 사회적으로 퍼진 이슬람 혐오와 공포 분위기도 다시 팽배해지고 있다. 버지니아 주의 기독교 학교인 리버티대학의 제리 폴웰 총장은 그런 무슬림들이 캠퍼스에 들어올 때를 대비해 학생들에게 무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CNN, MSNBC 주요 방송사들이 4일 이번 사건 용의자 부부의 집 안에 들어다쳐 곳곳을 생중계한 것도 지금까지 다른 총격 사건들에서 보이지 않던 모습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밤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동부 샌버너디노 총기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이슬람국가(IS)에 대한 응징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밝힌 대테러 안건은 새로운 것은 아니며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의회에서 이미 논의 중인 것들이고 이 중 대부분은 공화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행기 탑승금지 명단 수록자에 대한 총기구매 금지 ▲돌격용 자동소총과 같은 군사용 무기 구매 제한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무력사용권한 승인 ▲비자 면제

입국자에 대한 검색 강화 등 4개 항목이다.

이 중 비자 면제프로그램에 대한 개정안은 가까운 시일에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나머지 3개는 의회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WP는 분석했다.

오바마가 오벌오피스 연설을 한 것은 2010년 8월 이라크전쟁 종료 선언 이후 처음이다. 앞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직후 오벌오피스 연설을 한 바 있다.

한편 유엔에서는 IS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 IS에 대한 원유 불법거래, 인질 몸값 송금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거래 제재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결국 미 샌버너디노 사건은 발생 사흘 만에 '9·11 이후 최대 테러 사건'이 됐다.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들 중 한 명이 죽기 직전 페이스북으로 이슬람국가(IS)에 충성 맹세를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IS 발호 이후 미국의 대테러당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자생적 테러 시나리오'가 현실화됐음을 보여준다.

### 문화적 요소에 원하는 의미부여

(1면에서 계속)  
이처럼 쉽게 소비될 수 있는 미디어는 정치적 견해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쉽고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다.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게 진정한 대중문화"라고 톰슨은 말했다. "옛날이라면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면 비판을 일으키기 쉬웠을지 모른다."

물론 개인적 인식이 큰 역할을 한다. '헝가게임'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반정부 감정을 정당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실제로 영화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영화를 본다면 그런 느낌은 일지 않는다. 보스턴의 노스이스턴 대학 역사학 교수 티머시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예술이나 대중문화는 확정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대중문화는 사회운동에 대한 반응일 뿐 동기가 되진 않는다. 오하이

오대학의 현대사 교수 케빈 맷슨은 사회운동과 대중문화의 관계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순전히 대중문화로 사람들을 선동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지난 봄 대만에서 대학생들이 대중국 서비스무역 협정에 반대하는 '해바라기 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인디 밴드 파이어엑스에 노래 작곡을 의뢰했다. 바로 그 '도서천광(島嶼天光, 섬의 일출이라는 뜻)

이 그들의 공식 시위가 됐다. 수십 년 전엔 우드스탁 록 페스티벌에서 제퍼슨 에어플레인 같은 뮤지션들은 평화를 노래했다. 관중이 1960년대 반문화운동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기 때

문이었다. 1990년대 세르비아의 록음악은 징병제 같은 무거운 주제를 다뤘다. 반군들이 당시 독재자 슬로보단 말로세비치의 통치에 저항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끔씩은 대중문화의 한 단편이 실제로 혁명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시리아쿠스 대

학의 톰슨은 해리엇 비처 스토의 소설 '영글 톰스 캐빈(Uncle Tom's Cabin,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 노예제를 너무도 사실적으로 그려내 노예제 폐지 운동을 촉발했다는 설명이었다. 심지어 그 소설이 궁극적으로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도 있다. 그 외에 영화 '보이 포 벤데타(Boy for Vendetta)'는 국제 해커단체 해커스에게 영감을 미쳐 2008년 사이언톨로지 교회 같은 기독교 기관들이 그들의 공격을 받았다. TV 드라마 '윌 앤 그레이스(Will & Grace)'는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그려내 미국에서 동성애자 권익운동의 불을 지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화나 음악, 책만으로 사회 변혁을 일으킬 순 없다. 결국 변화는 사람이 일으켜야 한다. 노스이스턴 대학의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사람들을 세뇌하거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문화적 요소에 자신이 원하는 의미를 부여한다."

###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 시편 132편 이러한 영원한 능력을 사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양을 치는 목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축랄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넘쳐흐르도록 품고 살았습니다.

다윗왕이 왕궁을 짓고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궤는 회막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모시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궤를 모시기까지 편안하게 궁전에서 잠을 자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그동안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생각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인데 그는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순간순간 자기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은혜 앞에 착하고 충성된 마음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모습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다윗 왕의 마음에서 이 복이 넘쳐 솟아난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오벨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그 궤를 뒤 따라가면서 너무 기뻐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회막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준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 손으로 성전을 건축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삼하7:1-16). 이때 다윗 왕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바치고자 하는 사랑의 뜻이 거절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마음에서 솟아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을 드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서 뜻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그동안 사랑하였던 마음이 식어질 수 있는데 이는 육신의 욕심이 포함되어 있는 누룩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은 성전을 지어서 그 법궤를 그곳에 모시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버지를 성숙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참으로 정직한 사랑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성숙한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는 충실하게 성전을 지을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실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 나타나 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곧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곧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곧 기쁘게 희생하게 하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을 때 육신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풍성하도록 성령으로부터 기쁨을 부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랑 하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 나의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능력을 누리는데 자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사랑이 살아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여도 되는지 살펴봅시다. 등은 가졌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위로 하나님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시편을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새해에 이젠 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사모하며 성령께 구하여 기쁨 부음을 받기를 끌어 앞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또한 나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아멘.

www.rptse.com

# 동부개혁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6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학 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6년 1월 29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6년 1월 30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6년 2월 1일(월) - 3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 동부개혁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생각하며 삽시다

종말이라는 말 들어봤는가?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

가면 식당도 많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식당 들어가 보면 사람이 바글바글하다.

같았다. 그렇게 실컷 먹고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돈 버는 얘기, 자식들 얘기, 사람 사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한 부인이 "여자는 늙으면 돈값이야" 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귀에 들렸다.

다면서 그러니 불고기라도 실컷 먹자고 입을 짝 벌리고 먹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사실 그렇게 비싼 음식 실컷 먹고 마시면서 저런 얘기할 정도 되면 돈도 살만큼 번 사람이요 지금 먹고 마시며 즐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님을 찾았는가 싶을 정도 또 먹고 마시고 죄짓고 인생 즐기는 대만 도취되어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소돔과 고모라같이 죄악이 하늘을 찌르고 세상에서 실컷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 육신의 남은 때가 오는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다. 어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고 있었다면 "이 소돔 같은 라스베가스에 구원 받을 사람 10명 만이라도 제가 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것이다.

푸/른/초/장

박상훈 목사 (승동교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두 가지 면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 편에서 보는 인적 계보로 설명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처럼, 예수님에게 경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게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세력에 걸림이 된다고 여겨지면, 무자비하게 죽여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가 나옵니다.

엘에서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대에서는 마고스 지파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천문학에, 미신적으로 말하면 점성술에 능했습니다.

해서, 메시아 사상을 접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러왔던 것입니다.

어디 계신지 묻고 다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 헤롯 왕은 소동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두대 사람인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2:1-8)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며 또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올바르게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헬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증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처럼 헤롯 왕은 잔인했습니다.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묻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헤롯이 그들을 소집한 목적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지 물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솔즈베리시에 위치한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는 23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 격

- 1. PCUSA 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M.Div) 졸업 하신분
2. PCUSA 교단 소속 또는 가입이 가능하신분
3. 목사 안수후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분(부목사 경력 포함)
4. 이중언어가 가능하신분 (한국어, 영어)
5. 미국에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신분

제출서류

- 1. 이력서(한국어, 영어 각1부)
2. 목회비전 및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포함)
3. 설교 2편 (최근 6개월 이내 CD, 동영상, website 주소 제출)
4. 목사안수 증명서, 졸업 증명서, 학위 증명서
5. 추천서 2인( 목사님 ) 반드시 자필 서명
6. 사역교회 주보 (최근 1개월분)
7. Personal Information Form (Download from : http://www.pcusa.org/resiurce/personal-information-form)

제출서류 마감

- 1. 제출 기 한 : 2016년 1월 31일
2. 서류보낼곳 : (우편접수) 29900 Brighton Court Delmar, MD 21875 : IL BAE KIM
3. 문의 : 청빙위원장 : 김일배 장로(전화 : 410-422-9266), 청빙 위 원 : 김금화 장로(전화 : 410-430-9288) Email: geumh119@hotmail.com
4.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회 웹사이트: www.skoreanchurch.org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alisbury

사역자 청빙

Seeking for a part-time(20 to 25 hrs/wk) or full-time (40hrs/wk), dedicated and faith-filled Youth/Elementary/Preschool Director to minister to the needs of our children/youth, and leading them to spiritual commitments, disciplines, and discipleship that will result in spiritual maturity.

중부워싱턴 한인장로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1. 교회 교육에 경험 있으신 분
2. 2세 신앙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신앙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화합하며 재미있게 일하실 분
3. 영어 사용이 가능하고, 건전한 교단 배경을 가지신 분
4. 미국 영주에 지장이 없는 분

- 서류제출(이력서(Resume)와 신앙간증서(Statement of Testimony))들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비는 교육과 경험에 준하여 결정되고 필요한 이사회를 도와드립니다.

장소및연락처 Attn: 담임목사심수일(Senior Pastor: Sooil Shim) 950 Gage Blvd. Richland, WA 99352 Tel:509-627-9005E-mail:sooil10@hotmail.com

교회 웹사이트- kpcwc.org

중부워싱턴 한인장로 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LA@chpress.net NY@chpress.net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3. 종교적 입장

힌두교 불교 브라만교(Jainism)에서도 동물권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물론 윤회설에 근거하여 모든 살생을 반대합니다. 힌두와 불교 사회는 동물 제사를 금지시켰고 BC 3세기에 채식주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때부터 인도를 비롯한 불교국가에서는 동물 사냥과 살육금지, 짐승들에 대한 비폭력을 교리들로 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교리들은 어떤 살아있는 생물에든 해를 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작은 생물이든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물권 옹호는 이런 종교적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슬람은 이슬람법(Sharia)에 의해 이미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쿠란(Qur'an)과 하디스(Hadith)에 기초한 것으로 모든 동물들이 영혼이 있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신과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동물들이 각각 자신의 방법으로 신에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하멧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동물의 권리를 존경하도록 명했고 동물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상에 근거하여 모든 동물이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1) 동식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산업소가 정해진 만삭의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몸을 구부리며 새끼는 낳고 난 다음 새끼가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자라다가 성장하여서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들나귀, 타조, 말, 돼, 하마 등의 모든 동물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돌보시고 계심을 설명하십니다(39, 40장). 지금도 들짐승을 마시게 하시고 공중의 새들도 보호하시되 나무들을 심어서 그것들을 보호하시며, 뿐만 아니라 가축을 위해서는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 람을 위해서는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고, 높은 산에서 산양을 치시고 너구리를 바위에 피난처로 두실 정도로, 모든 동식물을 때를 따라 먹이시고 계십니다(시104:11-30).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마6:26-30).

2) 동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의 모든 짐승이나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 기, 곧 모든 산 동물들 채소처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동물들을 얼마든지 식량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창

11:2-3). 여기서 경작은 아담이 땅을 맡은 종이 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섬기는 개념을 말씀합니다. 에덴동산을 지키는 것은 침입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며 방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칠년마다 땅에 안식을 줄 것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출23:10-11). 안식년과 희년은 땅마저도 안식을 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안식년은 땅을 놀리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땅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신15:1-11).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칠십년을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대하36:20-21).

5)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 포함될 동식물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동물과 식물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서로 해를 가하는 존재인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속사와 어린 아이가 함께 어울리며,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 상함이 없는 상

리(animal rights)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생태계에 있는 먹이 사슬이나 먹이 피라미드 혹은 생태학적 공동체라고 하는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깨뜨림으로 생태학적 공동체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7. 성경적 환경주의

필자는 환경주의에 대한 내용을 동물에 제한하여 언급했지만, 이런 우리의 관점도 분명하게 성경에서 나와야 합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중, 예를 들면 땅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성경에서 유추되어야 합니다. 결코 땅은 우리의 어머니나 마음의 고향이거나 인간의 근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지만 또한 전체 창조계 곧 모든 형태의 생명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계의 주인인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이 흠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창조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세계의 자원을 사용해야 하지만,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고갈시켜서는 안됩니다. 이런 자원이 고갈되면 자연적인 결과는 인간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 제일교회)



환경 보호운동에 대하여 (하)

법입니다.

4. 잘못된 환경보호운동

한국의 목회자 한분이 환경주의 운동의 개척사 설교에서 "물은 만물의 기원이며 생명이다"라고 한 부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물을 보호하자는 운동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비성경적인 언급일 뿐만 아니라, 타종교의 교리와 사상으로 변질되는 환경보호운동이 됩니다.

환경운동가들 일부는 땅을 우리의 어머니(mother nature)나 아버지처럼 취급합니다. 그들은 땅을 우리가 나온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으로 인식합니다. 동시에 식물이나 동물과 더불어 인간의 생명인 동등함을 가르칩니다. 이는 힌두교나 혹은 뉴에이지적인 사상의 결과이며 무분별한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주의 운동이 꼭 힌두교와 결부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를 보호하기 위해 살육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들 중에는 힌두교적인 정신과 사상을 포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동물 보호운동을 벌이는 나체 여자 모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동물고기 먹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야만적인 것인가를 주시킴과 마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암시를 주며 채식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부 환경 보호 운동가들의 사상은 범신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히 땅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동물 보호를 위하여 식육을 금지하는 환경보호운동도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의 위기(ecologic crisis)를 걱정하며 모든 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운동과 단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주의나 환경보호운동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환경 보호주의가 아니라 성경적이고 개혁신명적인 환경 보호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5. 성경에 나타난 환경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9: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물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그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고, 미워하는 사람 집의 나귀가 짐을 싣고 앞도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일으켜 줌으로서 동물에게 친절을 베풀 것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신22:4). 곡식을 떠는 소에게 땅을 씌우지 말라고 하심으로 동물을 잘 먹일 것까지 말씀하시며(신25:4), 하나님께서는 가축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은4:11). 지혜자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때,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지만 악인은 잔인하며 금을 베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잠12:10).

이런 성경적 의미에서 우리는 일정한 한계와 균형을 가지고 동물 보호운동을 찬성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 목적을 위해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행위는 분명 옳지 못한 행위이며, 지혜자의 말씀에서 유추한다면, 동물의 생명을 무조건 빼앗거나 무시하는 것에 대해 익숙한 사람이라면 인간의 생명의 손실에 대해서도 같은 경향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식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성읍을 포위하여 점령하려 할 때 적의 땅일지라도 그 땅의 과실나무를 보존하고, 보통 나무들은 기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실 것을 명령하십니다(신20:19). 예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며 들꽃까지도 입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식물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식물들에게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미노산과 단백질의 합성을 이용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식물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되면 그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식물들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 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태라고 말씀(11:6-8)합니다.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은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말씀합니다(계22:2).

6. 동물에 대한 윤리

피터 싱어는 동물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 없다는 동물 해방론(animal liberation, 1975년)을 말하며, 더 나아가 톰 레건(Tom Regan)은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동물권(animal rights, 1975년) 주장까지 나아갔습니다. 이에 더하여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는 "사유한 인간은 그 자신의 생명을 외경(reverence)하는 것과 동일하게 모든 살고자 하는 의지를 소유한 존재도 동일하게 외경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촉진시키며, 성장 발전이 가능한 생명을 최고의 가치에 올려놓는 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생명을 파괴하고 손상을 입히며 발전 가능한 생명을 억압하는 것을 악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이것을 절대적이며 근본적인 도덕 원리라고 주장하므로 슈바이처는 인간 생명체만이 아니라, 그 보호의 대상을 우주의 모든 생명체로 확장합니다. 그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고자 애를 쓴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고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본래적인 가치, 즉 생명 인상에 스스로 품고 있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동물 해방론과 생명 중심주의적인 윤리는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불어 모든 생명체들은 생존을 위해 동물 이든 식물이든 우리가 존중해야 하지만, 이런 생명 외경의 사상을 어떤 행위를 위한 규칙으로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생명 외경의 사상을 규칙(rule)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로서 제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사슴과 같은 동물의 권

자신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땅의 자원을 파괴한다면 땅을 채우고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땅의 자원을 개발하고 늘려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인간 자신의 복지(welfare)와 땅의 복지는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동물에 대하여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동물 고기를 식용으로 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음식물(동식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이라"(딤후 4:3-5)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주의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동물과 인간이 동일한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며 동물을 비롯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을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은 우리 인간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에 대해서와 동물에 대해서 균형 잡힌 사용을 계획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죄악된 인간은 타인과 환경을 희생해서 자신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려는 이기적 욕망과 탐욕을 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된 사상에 기초한 환경 정책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운동 단체들이 기초한 사상과 윤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분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동물권에 대한 많은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그보다 더욱 높아지려는 모든 생각과 주장을 사료잡아 그리스도가 복종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고후10:4-5). 그러므로 환경보호 운동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메일: younsuklee@hotmail.com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 저는 약혼식 때 아내로부터 킹제임스 버전(King James Version)인 영어 성경을 한 권 선물을 받았습니 다. 이 킹제임스 버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랜스에서 John

A: 킹제임스 버전을 알려면 그 성경이 생겨나게 된 전 후 배경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525년에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 1494-1536)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종교개혁자이요 성경번역가입니다. 영국 서부지방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모들린 대학(Magdalen Hall)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윌시 경(Sir John Walsh) 가문의 가정교사로 생애를 시작했으나 성직자들과 편견도들의 성경의 무지를 보고 "성경을 자국어어로 읽도록 하기 전에는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띤던 그의 친구 톰스텔(Cuthbert Tunstall)에게 알렸으나 아무런 격려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얻은 확신은 이런 일은 어느 누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만인제사장 원리에 입각하여

영어성경 킹제임스 버전은 틴데일이 시작해 제임스왕이 완성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그 당시 케톨릭 신부나 수사들의 전유물이어서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전혀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도 읽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영어로 성경 번역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동료들도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번역은 당시 교회에서 칭송받을 일이 아니라 금지된 일이었으므로 조국을 떠나 독일로 향했습니다. 함부르크와 비텐베르크를 오가며 비밀히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구약의 일부, 곧 창세기에서 역대상까지의 일부, 요나서와 신약의 번역했고, 1525년 쾰른에서 최초로 신약 성경을 비밀히 인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습격으로 인쇄 작업이 중단되는 어려움도 겪기도 했습니다. 또 톰스텔, 토마스 모어(Thomas More), 캔터버리 대주교 워햄(William Warham) 등은 틴데일을 모질게 비판하기도 했고, 그를 체포하려고 비밀요원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단'이라는 죄목으로 심문을 받고 1536년 최고형인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인된 라틴어판 발게이트(Vulgate)를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전에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목이 잘린 그의 시신은 화형용 기둥에 묶여져 다시 불태워졌습니다.

그 후에 1611년 제임스 왕은 윌리엄 틴데일의 뜻을 받들어 47명의 번역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번역하여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 바로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버전(KJV)입니다. 영국 국왕인 제임스가 성공회의 예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1604년에 번역을 시작하여 1611년에 번역을 마쳤습니다. 흠정역 성경의 흠정은 임금이 직접 제정함을 말합니다. 흠정역은 19세기 말까지 영국성공회에서 사용한 유일한 공식 영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과거 틴데일의 거룩한 저항정신과 성경을 평신도들에게도 읽히게 하겠다는 열정과 영국 제임스 왕의 열정이 결국 이를 이룬 것입니다.

(2면에서 계속)

결국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제자훈련은 전적으로 혼자서 하는 영적 훈련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제자훈련의 공동체적 특성이나 관계성이 따라서 취약하다. 제자훈련을 개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들 중 30% 정도만이 교회가 추천하는 멘토와의 만남이나 그룹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목회자들의 견해

평신도들이 제자훈련을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반면에 목회자들은 혼자서 아닌 두 사람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제자훈련을 강조한다. 따라서 52%의 목회자들은 소그룹 형태로 이뤄져야한다고 응답했고, 29%는 일대일로 짝을 이루어 진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목회자들에게 있어, 소그룹 모델이 제자훈련을 가장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이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대형교회일수록 관계를 중시하는 제자 훈련 모델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매주 500명 이상이 출석하는 대형교회 중 80%는 제자훈련은 그룹이나 먼저 제자훈련을 받은 교인을 통해 일대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형교회(100-499명)는 그 비율이 64%로 그리고 100명 미만 교회에서는 55%로 떨어지고 있다. 목회자들에 따르면, 제자훈련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어떠한 구조나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기도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제자훈련이라는 영적 훈련을 위한 3가지 방법들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한 개인의 헌신(94%)", "정기적인 교회 출석(91%)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사랑(90%)"이다. 따라서 제자훈련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목회자들은 44%에 불과하다.

결론으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자,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좀 더 분명하고 영향력 있게" 제자도에 접근해 교인들을 양육시킬 수 있어야한다고 응답했다(27%). 여기에,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제자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교인들의 훈련 상태나 질을 평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일본의 류우큐우인(RYUKYUAN)



일본의 류우큐우인들은 류우큐우제도(Ryukyu Islands)에 살며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7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종족이다. 오키나와를 포함한 이 조그만 열도는 일본의 남단인 류우슈우와 대만의 북동부 사이인 일본의 남서쪽 지점에 위치해있다. 류우큐우인들은 일본 민족이면서 동남아시아인의 후손들이다. 그들이 쓰는 언어는 섬마다 다르며 또한 마을마다 방언이 달라진다.

그들의 방언은 모두 일본어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실제로 서로 다른 종족들 간에는 의사소통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 과거 일본인들 사이에 많이 사용됐던 토착 언어들 중에서 몇몇 언어들은 북부와 남부의 아마미-오시마(Amami-oshima), 도쿠노-시마(Toku-no-Shima), 오키노-에라부(Okino-erabu), 남부 류우큐우인(Southern Ryukyuan), 아예야마(Yayeyama)어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언어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점차 일본어로 대체됐고, 젊은이들은 토착 언어를 거의 알지 못한다.

과거 중국과 일본의 속박가운데 있었을 때 류우큐우인들은 참고 순응하는 것을 배워야 했으며, 다른 민족들은 류우큐우인들을 "후진적"이라거나 "문화적으로 덜 발달" 민족으로 여기기도 했다.

삶의 모습  
오래 전에 류우큐우인들은 중국

과 일본, 다른 동양권 지역의 항구들로 다니며 독립 상인으로서 활동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들 대부분이 농부들이며 주요 작물이자 환금작물로서 고구마와 쌀을 재배하고 있다.

류우큐우인들의 문화생활은 가족중심이다.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발일을 하기 위해 함께 집을 나서며, 밭에 나가서는 각자 맡은 일을 한다. 사람들은 열심히, 또 많은 시간 일을 하는 성향이 있으며 여가시간은 매우 적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류우큐우인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가시간이 생기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낸다. 어린아이들은 자주 형제, 자매끼리 함께 잠을 자며 사별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혼자 방을 쓰시는 경우 주로 손자와 함께 잠을 잔다.

류우큐우인 여자는 전통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한다. 축제나 기념행사들이 있을 때, 남자들은 여자들과 섞이지 않고 따로 남자들끼리 어울리면서 주로 적포도

주 "사케"를 마신다. 가족의 전통에 따라 받아들이는 부모의 재산에 대해 가장 큰 혜택을 누린다. 결혼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시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시가에서 살며, 전체 집안 재정을 돌볼 책임을 갖는다. 과거에는 지역사회 규모가 작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쉽게 모든 주민들에게 알려졌다. 따라서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율이 낮았다.

류우큐우인 어린이는 8-9세에 학교에 들어가서 16세 무렵이 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한다. 현재 이 섬에는 3개의 대학교가 있다. 과거에 사회가 단순했을 때는 그들의 삶의 목표가 많은 가족과 음식, 친구를 얻고 가능한 한 대가족을 꾸리는 것이었지만, 일본인들이 1879년 이 섬을 장악하고 난 후에는 삶의 목표들이 바뀌었다. 일본인은 토착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일본어를 쓰도록 교육제도를 도입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고유 언어를 쓴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심지어 벌을 받기도 했

다. 따라서 젊은 류우큐우인들은 류우큐우가 더 큰 범위의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중요성을 두면서 정체성을 찾게 됐고, 결국 그들만의 토착언어는 사라졌다.

사회적 진보는 자급자족 류우큐우인들을 외부인들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환금작물의 판매, 관광업, 미군기지에서 병사로 근무하는 것 등이다. 또한 많은 류우큐우인들은 보다 더 나은 생활조건과 일자리를 찾기 위해 더 큰 섬이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 신앙

자료에 의하면 류우큐우인들은 불교신자라고 하지, 사실 전통적인 샤머니즘 관습이 아직도 널리 행하고 있다. 즉, 그들은 보이지 않는 많은 신들과 악마, 조상의 영혼을 믿는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영원히 자기 가족사(史)의 연장선에서 존재한다고 여긴다.

사람들은 또한 "카미"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조상의 영혼과 세상의 모든 영역, 즉 바다와 육지

등을 통제한다고 믿는다. "조상영혼숭배"는 사회적인 범위에서 지켜지는 신앙이며, "카미"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각 가정에서 지켜지는 신앙이다. 특히 "카미"를 위로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개인에게 화가 닥쳐올 수 있다고 믿으며 어떤 결정이든 내리기 전에 "카미"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집에서 종교 의식을 주관하며 조상의 사당을 돌본다. 여자들은 "카미"와 사람들 간의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된다.

#### 필요로 하는 것들

일본인들은 류우큐우인들을 이류(second class) 시민쯤으로 여긴다. 그런 이유로 류우큐우 제도는 본토의 늙은이나 장애인들의 하차장이 됐다. 류우큐우인들은 국가적 자부심과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의 연합을 도모했지만, 그들이 바라던 평화는 얻을 수 없었다. 그들의 참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미 대형교회들, 교인 수 증가불구 참여율은 하락

대형교회에 과거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출석하고 있지만, 이들은 중소형 교회 교인들에 비해 교회에 자주 나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하트포드종교연구소와 리더십네트워크가 발표한 '최근 미국 대형교회들의 변화'(Recent Shifts in Americas Largest Protestant Churche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교회들은 미국 전역에 걸쳐 성장하고 확산되고 있지만, 이 같은 현상 속에 일부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미국 내 교인 수 1,800명 이상 되는 209개 개신교회들을 대상으로 2000년 이후 5년마다 조사했다. 그에 따르면, 이 대형교회들 중 71%가 지난 5년간 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대형교회 가운데 39%는 예배 인원이 10%에서 49%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19%는 예배 인원이 50%에서 99%까지, 13%는 100% 혹은 그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대형교회 중 11%만이 지난 5년 동안 예배 인원이 2%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리더십네트워크에서 이번 연구를 진행한 워렌 버드 박사는 릴리전뉴스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주 개신교인 중 10명의 성인과 1명의 자녀가 대형교회로 갔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500만 명 정도"라고 전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대다수의 대형교회에서 교인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 주지만, 오히려 예배에 나오는 교인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조사 대상 샘플 교회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인원은 평균 2,696명으로 2010년 3,800명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은 지난 10년 동안 약 14% 정도 감소했다. 지난 2005년에는 전체 교인 대비 주중 예배 인원은 96%였으나, 2015년에는 82%로 줄었다.

하트포드종교연구소의 스콧 팀바 박사는 "규칙적인 예배 참석을 내가 갈 수 있을 때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우리는 대형교회들도 소형교회들과 같은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사회 내의 문화적인 역동성에 대해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새 신자들을 붙들고 제자훈련을 시키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잠깐 동안만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하지, 장기간 헌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록 대형교회들의 주중 참여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2천명 이상 규모에 도달한 교회들의 수는 늘고 있다. 리더십네트워크에 따르면, 미국 대형교회들의 수는 과거 10년 동안 약 39% 늘었다. 보고서는 "1990년 이후 세워진 교회들은 그 전의 대형교회들과 상당히 달라 보인다. 젊은 교회들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젊은 목회자들은 보다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것 같다. 이들은 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오래된 대형교회들에 비해 젊은이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지교회들 둔 교회들의 수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전체 대형교회 중 여러 지교회를 둔 곳이 27%였으나, 2015년에는 62%로 나타났다.

#### 미국내 발생 테러 80% '외로운 늑대' 소행

2001년부터 14년간 미국에서 연방정부 건물이나

공직자를 노린 테러 공격 중 80%가 기존 테러조직에 속하지 않은 단독범인, 즉 '외로운 늑대'의 소행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비밀경호국(SS)은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기간에 발생한 테러공격 43건 중 35건의 범인이 1명이었다고 발표했다. 2명 이상의 범인이 저지른 공격행위는 3건이었고, 나머지 5건은 정확한 공범의 수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였다.

비밀경호국은 이 보고서에서 분석 대상이 된 테러 공격 중 절반 정도에서 여러 종류의 '사건 징후'가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범인 39명 중 25명(64%)은 사건이 발생하기 1년여 전부터 분명한 대상을 향해 위협적인 언행을 하거나 불만을 표했고, 21명(54%)은 직장에서 결근이 갑자기 잦아지는 등 사회 활동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났다.

18명(46%)의 범인은 범행 전에 이유 없이 며칠에서 몇 달동안 종적을 감추는 등 대인 관계에서 문제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편집증이나 환각 같은 정신질환이 범행 동기로 이어졌다고 판단된 경우는 8명(21%)이었다고 밝혔다.

비밀경호국은 어떤 형태의 테러 공격이든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런 협력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치안 당국이 개입하면 테러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잠재적 테러범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은 총기문제 해결 못해" vs "무슬림 살인자"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부 샌버나디노 시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뉴욕 현지신문의 편집·보도 방침이 논란을 일으키며 눈길을 끌고 있다고 3일 미국 언론이 지적했다.



부동산 거부 출신인 모트 주커먼이 소유한 뉴욕데일리뉴스와 언론재벌 루퍼드 머독이 주인인 뉴욕포스트가 이번 사건을 1면 머릿기사로 전하면서 일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눈에 띄는' 제목을 달았기 때문이다. 두 신문은 뉴욕의 대표적인 지역 신문이다.

특히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두 신문이 이번 사건을 놓고 전혀 다른 관점과 시각에서 다뤘다는 점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뉴욕데일리뉴스는 "신은 총기난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제목을 달아 관심을 모았다.

이는 이번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공화당 소속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희생자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한다"는 취지로 애도의 메시지를 남긴 데 대해 직접적인 비판의 뜻이 담겨 있다.

이 신문은 제목에 이어 기사 본문에서 "무고한 미국인들이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도 총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쟁이'(공화당 정치인들 의미)들은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의미 없는 진부한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고 힐난했다. 미국에서 잇따라 대형 총기난사가 터지는데도 정치권, 특히 공화당 정치인들이 총기규제 등의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행태를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는 투의 의미 없는 메시지만을 내놓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의 총기난사 없도록 행동에 나서라는 촉구인 셈이다. 그런데도 뉴욕데일리뉴스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의 뉴욕포스트는 아예 대놓고 "무슬림 살인자"라고 제목을 달아 이번 사건을 종교 간 대결로 몰고 가 논란을 초래했다.

이 신문은 "이번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은 독실한 이슬람교도"라며 "당국은 이번 사건이 (이슬람교도에 의한) 테러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몰아갔다.

한 뉴욕시민은 CBS방송에 "이제는 정치인들이 총기 규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면서 "기도만으로는 총기난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미 무슬림사회, 이슬람공포증 확산할까 '전전긍긍'

미국에 사는 무슬림과 아랍계 시민은 로스앤젤레스 동부 샌버나디노 시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인 사이드 파룩(28)과 타시핀 말리크(27·여) 부부가 무슬림으로 밝혀지면서 안 그래도 파리 테러 이후 미국 사회에 고조된 이슬람 공포증이 더욱 확산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3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인권 시민단체인 미국 아랍차별반대위원회(AADC)는 이번 총기 난사 사건 이후의 안전 대책을 협의하려고 4일 국토안보부 관계자와 만날 계획이다.

14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샌버나디노 시는 아랍계 및 무슬림 시민이 많이 사는 LA에서 차로 한 시간 가량 이동하면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아베드 야우브 AAADC 법률·정책 국장은 "이번 총기난사 사건의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우려가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번 총기 난사 사건에 따른 보복 공격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슬람 및 아랍 공동체가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야우브 국장은 "우리는 파리 테러의 여파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건이 발생한 샌버나디노 시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 있는 이슬람교 지도자들과 시민은 이번 총기난사 사건 이후 속속 나오는 사실에 충격과 함께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산 칸 아마디야 무슬림 공동체 회장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하고 끔찍한 폭력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우리의 마음은 무고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가 있다"고 말했다.

밀워키에서 중동 물품을 파는 슈퍼마켓을 가족과 함께 10년째 운영한다고 밝힌 이슬람교도 다우드 다우드는 "모든 문화와 종교마다 나머지 사과들을 썩게 하는 나쁜 사과가 있겠지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비유했다.

이슬람교 지도자들은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이슬람교와 신자들을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이슬람 관계 위원회의 후삼 아이로우쉬 집행이사는 "무슬림 사회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어떠한 주장도 거부하며 동료 미국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겠다"고 강조했다.

CNN방송은 사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파룩이 알려진 해외 테러 용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급진적으로 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파룩이 다니던 회교사원의 성직자인 마흐무드 나드비(39)는 AFP에 "우리는 급진화의 징후를 보지 못했다"며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후에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받았고 이런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추가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 푸/ 른/ 초/ 장

(4면에서 계속)

이처럼 그들은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헨에서 탄생하도록 되어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방박사들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

그들은 그 즉시 유대 베들레헨으로 뛰어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쁘게 감사하며,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헤롯 왕의 위선입니다.

마2:7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은 예수님이 나시도록 되어있던 곳이 유대 베들레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였습니다. 장소와 때, 이 두 가지만 알면, 헤롯은 자기가 뜻하는 바를 쉽게 행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자기의 권좌를 지키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죽여 없애는 위함이었습니

그러나 헤롯은 자기 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속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속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헤롯은 이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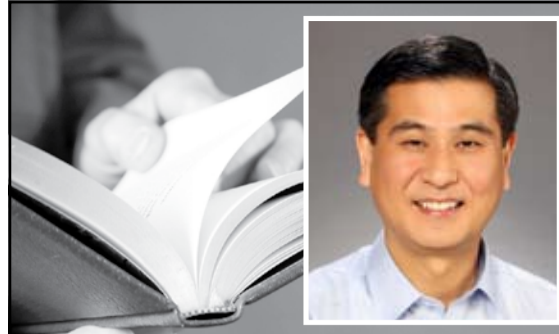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헨으로 보내며, 그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게 했습니다. 둘째, 그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 돌아와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그 아기를 자신의 정적으로 생각하고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

오늘날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15:18 말씀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또한 미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이기시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담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당시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박사들의 경배입니다. 둘째로, 은 유대사울의 소동입니다. 셋째로, 헤롯 왕의 위선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번 성탄을 맞이하렵니까? 성탄에 무관심하지 맙시다.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드릴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입술만의 경배가 아니라 진정한 경배를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에게 경배하기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에게 드릴 귀한 예물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성탄을 맞이하는 큰 기쁨과 넘치는 감사와 헌신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48)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 교회 - 교리의 형성: 무엇을 믿는가? (3)

크리스마스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중요한 교회력 중에 하나이다. 4세기에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날을 12월 25일로 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내려오

없이 즐기는 명절이 되었다. 이날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빠진 성탄절(Christ-less Christmas)로 전락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 또는

■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였다. 교회의 출발과 함께,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기초로 형성되고 확장되어갔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대를 명시하고 비방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접미사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와 버금가는 우리말 표현은, 바로 "쟁이"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쟁이"라는 조소의 뜻을 담은 호칭을 들어야 했다. 처음에는 매우 불편한 마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보편화된 후

는 엄청난 일이다. 가장 잔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인 십자가에서 죄인의 몸으로 생을 마감한 예수라는 청년을 그리스도로 부르며 따라간다는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따랐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들은 예수를 인류를 구원을 담당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구세주로 확신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못 보지 못한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나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백과 삶이 일치되었다는 증거였다.

■ 그리스도의 정체성 성도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앙을 위한 가장 첫걸음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어떻게 알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한 사실이었다. 또한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후대에 전달한 사도들의 역할도 절대적이다.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의 신앙의 초석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반드시 신성과 인성을 지녀야 했다.

##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확고한 성경적 기초에 근거하며 발전

고 있다. 이제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가 가장 커다란 명절로 지키는 날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한 사람으로 너무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속상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간혹 성탄 캐롤 소리도 들리고 성탄 카드도 주고받지만, 그리스도와 상관

'잘못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질문: 313년 속사도 시대의 마감 전에 출현한 이단에 대처하며 형성된 초대교회 기독교(그리스도에 대한 연구)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살피면 후 외부 사람들이 내린 평가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이런 호칭을 지닌다는 것이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다. 상

에는, 성도들은 기꺼이 이 호칭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사뭇스런 일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의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배경을 고려해보면, 상상할 수 없

조월적인 능력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일이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일이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초대교회의 기독교론은 크게 세 가지로 발전하였다. 1)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떤 것이었나? 2)그리스도의 인성은 어떤 것이었나? 3)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관계되었는가? 전통적인 기독교론은 다음과 같다.

(12면으로 계속)



## 정말 그랬을까?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16)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언감리교회 담임)



###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맨발로 일했다

성경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제사장은 세마포로 짠 모자를 썼다. 모자에 단, 얇은 금판으로 된 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대제사장은 에봇이라고 부르는 겹옷을 입었다. 이 에봇에는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았다. 에봇의 받침 겹옷은 순 하늘색으로 되어 있다. 그 옷자락에는 세 가지 색으로 된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다. 대제사장은 양쪽 어깨 위에 호

마노라고 불리는 견대를 찼다. 이 견대에는 12종류의 보석이 물려 있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흉배는 두 겹으로 되었고, 그 안에는 우림과 돌림이 들어 있었다. 그것 역시 보석인데 대제사장은 이우림과 돌림을 이용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허리에 차는 띠는 금식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들었다. 성경은 대제사장의 속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너는 가는 베 실로 반포 속옷

을 짜고 가는 베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 놓아 만들지니라"(출 28:39).

평상시에 대제사장은 이런 예복을 입고 성소에서 일했다.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런 옷을 입지 않았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평상시에 입는 관복을 입지 않고 세마포 옷을 입는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가 잘못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제사장외에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밖에서 그를 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 밧줄을 매고 들어

갔다.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발을 소리로 알 수 있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발을 소리가 나지 않으면 번고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낸 "전설따라 삼천리"이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평상시에 입는 금방울이 달린 관복이 아니라 세마포 옷(세마포 옷에는 방울이 달려있지 않다)을 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대제사장이 입는 관복에 대해서 모자부터 심지어는 속옷까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다. 신발과 양말에 관한 것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대제사장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 양말도 신지 않았다. 그는 성소에서 항상 맨발로 일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양말도 신지 않고 일할 수 있는가? 신체 중에 가장 더러움을 많이 타는 곳인 발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수 있는가?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가려야 할 곳인데, 맨발로 일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

성경이나 중동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와 다르다. 지금도 이슬람교도들은 사원에 들어갈 때 신발만 벗는 것이 아니라 양말까지 다 벗는다. 그것이 신 앞에 나아가는 예의라고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시멜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 3:5)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수3:13).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그들은 맨발이었다(수 4:18).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원을 준비하고 첫 번째 전투(여리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군대장관)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다(수5:15).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사명

이 주어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수1:3-4, 잠조 신11:24).

하나님 앞에 서려면 모세처럼 신발을 벗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모세처럼 신발을 벗어야 한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처럼 신발을 벗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신발을 벗어야 한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려면 신발을 벗어야 한다. 약속에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한다.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먼저 신발을 벗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신발을 벗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신발만 아니라 양말까지 벗어야 한다. 내가 벗어야 할 신발은 무엇인가?

이메일: jinhee1004@yahoo.com

# 조성근목사 기도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방송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 투 브 조성근 목사 '세상을 이기는 지혜-솔로몬'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b>2015년 1월</b> 1월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1월 ~ 13일 (평동)동원교회 남부시할 재지부회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b>2월</b> 2월 ~ 19일 LA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목사) 9월 ~ 12월 GST 신학생훈련 (34차)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3일 ~ 26일 동종교회 (윤석동목사)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b>3월</b> 1월 ~ 3일 예수비전교회 (반창홍목사) 9일 ~ 11일 (한동)태백교회 연합성회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3일 ~ 26일 동종교회 (윤석동목사) 27일 신묘철 철야기도회 (GST) <b>4월</b> 6일 ~ 8일 용인 신세계교회 (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3일 캠퍼스대학교 대학원 재물 26일 신묘철 철야기도회 (GST) 27일 ~ 29일 회평교회 (이재욱목사) <b>5월</b> 1일 ~ 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8일 ~ 21일 소망교회 (이정현목사) 24일 ~ 2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31일 하들비전교회 (오영택목사) 신묘철 철야기도회 (GST) <b>6월</b> 1일 ~ 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강화) 8일 ~ 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5일 ~ 18일 온양감리교회 (도광현목사) 22일 ~ 25일 예우림교회 (류명희목사) 28일 ~ 31일 (한동) 남수원교회 교사강습회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b>7월</b> 6일 ~ 1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9일 ~ 21일 청운교회 (강대석목사) 20일 ~ 2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6일 신묘철 철야기도회 (GST) 27일 ~ 29일 천마산기도원 (육광석목사) <b>8월</b> 29일 ~ 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9일 ~ 12일 나사렛성경교단 연합성회 17일 ~ 20일 GST 신학생훈련 (35차) 30일 신묘철 철야기도회 (GST) <b>9월</b> 6일 ~ 8일 천은교회 (강대석목사) 14일 ~ 1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3일 신묘철 철야기도회 (GST) 26일 동산교회 (박경순목사) <b>10월</b> 4일 ~ 7일 성동중앙교회 (이인호목사) <b>11월</b> 11일 ~ 14일 임실교회 (김교문목사) 19일 ~ 22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1월 18일 ~ 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8일 ~ 11월 삼일성경교회 (이종연목사) 15일 ~ 18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6일 ~ 19일 대한교회 (윤영미목사) 27일 ~ 29일 드림교회 (장준희목사) 30일 예우림교회 (류명희목사) 강서제일교회 (전준남목사) <b>12월</b> 7일 ~ 29일 강서제일교회 (전준남목사) 11월 ~ 10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3일 ~ 27일 GST 미션리서치 (캄보디아) 28일 ~ 31일 신묘철 철야기도회 (GST)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b>2014년 1월</b> 1월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0일 ~ 12일 평화의동산 기도원 (피종진목사) 12일 ~ 15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16일 ~ 25일 우리들교회 (김호경목사)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신학생 철야기도회 (GST) <b>2월</b>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 (문홍구목사) <b>3월</b> 20일 ~ 29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1일 ~ 26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7일 ~ 31일 LA 나사렛성경교회 (한기영목사) <b>4월</b> 7일 ~ 9일 캠퍼스대학교 대학원 재물 14일 ~ 1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3일 신묘철 철야기도회 (GST)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b>5월</b> 19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0일 ~ 15일 캠퍼스대학교 대학원 재물 22일 ~ 2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7일 ~ 29일 LA 나사렛성경교회 (한기영목사) <b>6월</b> 9일 ~ 11일 명수대학교 (김강영목사) 12일 ~ 15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6일 ~ 19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0일 ~ 29일 LA 나사렛성경교회 (한기영목사) <b>7월</b>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4일 ~ 17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8일 ~ 25일 트랜스교회 (김기홍목사)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강화) <b>8월</b>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b>9월</b> 11일 ~ 12일 평화의동산 기도원 (피종진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7일 ~ 20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21일 ~ 25일 우리들교회 (김호경목사) 2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7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신학생 철야기도회 (GST) <b>10월</b> 11일 ~ 12일 평화의동산 기도원 (피종진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7일 ~ 20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21일 ~ 25일 우리들교회 (김호경목사) 2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7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신학생 철야기도회 (GST) <b>11월</b>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9일 ~ 11일 명수대학교 (김강영목사) 12일 ~ 15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6일 ~ 19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0일 ~ 29일 LA 나사렛성경교회 (한기영목사) <b>12월</b> 8일 ~ 11일 영신교회 (이영목사) 14일 ~ 1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8일 ~ 25일 트랜스교회 (김기홍목사)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강화)
---



## 리더십 코멘터리 (6)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 리더십은 원칙과 일관성과 소통능력이다

#### 미국 대통령 당선의 비법

작은 조직이라도 어떤 사람이 리더(Leader)로 선정되느냐에 따라 일할 분위기는 달라진다. 최근에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 시티) 선수 등이 활약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의 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수준이 높아졌다는 소식이다.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리더가 누구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리더십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내려져 있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따로 떨어져 있었던 영역 간에도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상황에서 리더십의 필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리더십이며, 리더십에 대해서 많

### 영적리더들에게 원칙과 일관성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리더십은 사람과 사람 사이 신뢰를 근간으로...시간이 필요

문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리더 한 사람 때문에 조직과 공동체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화두(話頭)는 과연 리더의 자질(quality)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크게 각광받는 리더의 자질 중 하나는 소통능력(communication skills)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담대한 희망(The Audacity of Hope)’이라든가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Dreams from My Father)’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했고, 또 여러 번의 감동적인 연설로 모든 계층의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리더십은 불확실성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안

리더십(Leadership)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원칙이란 ‘기준’ 또는 ‘일관성’이란 말인데 리더십에는 단란한 바위처럼 기준이 되는 무엇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십의 핵심은 원칙과 일관성이며,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최근에 미국의 경영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분야 중의 하나는 단연 리더십이다. 뉴욕시장을 지낸 루돌프 줄리아니(Rudolph Giuliani)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필두로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다룬 책들이 계속 출간되고 있다. 리더십이라는 것이 새로운 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다시 강조되는

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 믿음과 원칙을 버리지 않는 리더

리더의 자격과 관련된 영화 한편이 있어 눈길을 끈다. ‘컨텐더(The Contender)’라는 영화의 주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임기 말년에 뜻하지 않은 부통령 유고기간이 3주간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은 단 하루도 그 자리를 비워 놓을 수 없어 적임자를 선정하는데 고심한다. 그리고 유력한 후보들 가운데서 예상을 뒤엎고 여성 상원의원이 지명된다. 그녀가 부통령이 된다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 중에 그녀는 대학시절에 있었던 스캔들에 휘말렸다. 여론이 불리한 방향으로 치닫고 부통령이 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는 와중에도, 그녀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한참 후에야 스캔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대통령은, 그녀에게 왜 진실을 말해서 위기를 빠져나오지 않고 노코멘트로 일관했는지를 물었다. 그녀는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

“부통령의 자격은 정책과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사생활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스캔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부통령의 자격과 사생활은 무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정치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해서 제 믿음과 원칙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리더십은 관계이다

리더십의 핵심은 원칙과 일관성이다. 원칙은

매사가 순조롭고 편안할 때는 누구나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원칙을 원칙 되게 만드는 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자신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진정한 원칙이 아니며, 또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돌파해 나가는 현명한 태도도 아닐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올바른 원칙과 일관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리더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근간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리더십 자체는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이다.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듯, 리더십에서도 신뢰의 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다는 진실한 마음가짐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출선수범을 통해서 스스로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키고, 성실하게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 이외에 간과하기 쉬운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돕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주위 환경이다.

리더십도 인간관계인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순간적인 첫인상이나 단기간의 관찰만으로 조급하게 판단하여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

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만 진정한 리더십은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이다.

시대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교회도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하다. 사회와 교회에서 다양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에 대한 필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리더십은 사회 조직의 경쟁력의 근간이며, 목적 있는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더 나아가서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정한 리더십이 형성되고 발휘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형성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과제일 것이다.

#### 영적리더들의 원칙과 일관성

영적리더들에게 원칙과 일관성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기준이요, 원칙이요, 일관성 있게 나갈 수 있는 힘은 곧 말씀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대면하여 만나주시는 지도자 모세는 장막을 다 지은 후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은 그 제사 지내는 방법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 정성을 다해 순종하며 제사를 드린 것이다. 모세는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행한 리더십에 원칙과 일관성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이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가르쳐주시는 방식이었다. 모세가 했던 모든 일의 원칙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말씀으로 끝났다. 영적리더는 ‘하나님 말씀대로’가 리더십의 원칙과 일관성이 되어야 한다.

이메일: sondongwon@gmail.com

##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 믿음의 탁월한 선택을 한 여인 롯

롯은 모압 여인으로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려 하니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의 하나님 이 나의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홀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지방으로 옵니다. 과거에 익숙하던 이방의 모든 풍습을 버리고 자신이 택한 유다족속의 생소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순복하여 따릅니다. 추수하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찾아 홀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나오미의 말 그대로 순종하여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믿음 고백을 시점으로 이스라엘의 산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어 책임감이 강하고 따뜻하고 인품이 넓고 덕망 높은 보아스를 만나는 롯입니다.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끼게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환경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상인 사람은 그다지 흠치않습니다. 라합은 몸을 파는 기생이었고, 롯은 형통을 중시하는 유다족속에 적대 관계에 있는 유다 땅에 온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거기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아주버니도 남자라곤 씨가 마른 집안의 이방 며느리였습니다. 손가락질에 돌팔매질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남편, 자식 다 잃고 홀로 돌아온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 나선 롯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따라 나서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환경가운데 꼭 필요한 믿음으로 인도 해주고 순복의 대가로 덕스러운 좋은 남편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탁월한 믿음의 선택을 한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로 여기는 것이 제 아무리 태산으로 보여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주님의 절대기준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올라오니 아무리 감추려 해도 덮여둘 수 있는 죄가 한 개도 없고, 이로 의의 판단은 하늘에서 오직 하강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옮긴 것만이 별처럼 빛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 해주시는 하나님을 롯의 생애에서 뚜렷이 보며 감격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남편도 없는 시모를 쫓아오는 며느리 롯이 놀랍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어 시금치도 안 먹고 시어머니가 옮겨 아파트 이름도 생소한 이상한 외국이름으로 짓는 시어머니 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라고 해서 고부 문제가 없을 리 없었던 만 참으로 아름다운 친 부모, 자녀를 능가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부럽기만 합니다.

제게도 이런 복을 주시길 염치없이 구해봅니다.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잘해주는 것을 참견으로 생각하고 밀어내는 며느리라면 어찌겠습니까?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그런 고부관계란 오직 둘 다 산 하나님을 가슴으로 섬겨야 가능하다 여겨집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 된 고부관계의 공활을 부여주소서.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6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2016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6.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6)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3(Fri)-16(Mon) 2016
- 2) Place: Philadelphia USA

####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Malachi 4:1-6
- (2) NT Exegesis Text - 1 Corinthians 2:1-5
- (3) Thesis Topic - What is the Biblical view on homosexuality? Elaborate the Church's response on this issue.
- (4) Sermon Text - NT: Romans 1:18-32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Jameshur63@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YunJoonHur-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6.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US). (Pay to the order of - The New Life Presbyterian Church of NY)

####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6.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5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0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7-20).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3-16 2016 Philadelphia) through Rev. Yun Joon 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7. Submission Address

Rev. Yun Joon Hur / Address: Cell : (718)637-1470 E-mail : Jameshur63@hotmail.com

####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Hyun-in Kim (201)875-8212 (Hyuninkim@hotmail.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Yun Joon 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 3)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Dae Yul Kim (339)223-2763 (Daenaree@yahoo.com)

총회장: 김영수목사

서기: 조용철목사

고시부 부장: 김현인목사

고시부 서기: 허윤준목사





목회서신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박성규 목사 (주세세운교회)

제가 타코마에서 목회할 때, 전도해서 지금은 장로가 되신 워싱턴 주상원의원 신호범 장로님은 그분의 인생 중에 아팠던 시간들이 지나보니 모두 오늘의 자신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신호범 장로님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자

식들을 버리고 도망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할머니 집에서 눈치 밥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외숙모의 구박이 너무 심해 6살 나이로 가출해서 서울역에서 거지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6.25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 통해 미군병사에 의해 하우스보이

(House Boy)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어머니가 그리워서 울었고 외로워서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그에게 폴(Paul)이란 미군이 다가와서 품에 안아 위로해주었고, 그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입양되어 왔습니다. 그 후 그는 미군에 입대

하여 군 생활을 하다가 한번은 친구들과 식당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당시 유색인종의 출입이 금지된 백인 식당이었습니다. 신 장로님은 그곳에서 식사하다가 백인들에게 끌려서 식당 문 밖으로 내동댕이쳐지는 수모를 당하면서 또 한번 서럽게 밤새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정치가가 되어 이런 인종차별 법을 없애야겠다고 모질게 다짐했습니다. 신호범 장로님은 그 식당밖에 내던져지는 수모와 아픔이, 밤새 흘렀던 그 눈물과 통곡이, 오늘을 자기를 워싱턴 주상원의원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나보니 그 슬픔의 자리에서 자기를 일으켜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욥23:10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23:4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으나 지나보면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목사가 되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아프고 고통스런 사건이라도 지나보면 그 사건이 나를 영적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였고, 나의 믿음을 성

숙되게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 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전5:16-18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여러분!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고 나의 머리털도 하나님께서 모두 세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사 예수님의 선하신 인도에 감사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기쁘고 슬펐던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수상-유혜경, 장려상-김영국, 김영임, 이승순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장영춘목사)가 주최한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의 수상자가 발표됐다. '레디컬 투게더' '믿음이란 무엇인가' 등 6권의 추천도서 중 한 권을 읽고 접수마감일인 10월 15일까지 접수된 14편을 3인의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 우수상: 유혜경(CA) △장려상: 김영국(NY), 김영임(IL), 이승순(TX) 등 총 4명이 선정됐다. 우수상을 받게 된 유혜경(CA)은 월드미션대학교 재학 중인 신학생이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읽고

독후감을 썼다. 장려상을 받는 김영국 집사(뉴욕성결교회)와 이승순 사모(그린빌한인교회)는 '레디컬 투게더'를, 김영임 사모(시카고밀알교회 원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각기 선정해 독후감을 제출했다.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는 소정의 도서구입권이 전달되며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3백 달러,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2백 달러의 부상이 수여되며 수상작품은 본 협회 사들의 지면신문이나 인터넷판 또는 방송을 통해 보도된다. 신앙도서 공모전은 양질의 신앙

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가 주최하고 기독교서적, 두란노서원, 말씀사, 베델서적 등이 후원했으며 심사는 전인철 목사(OC생명말씀사), 백승철 목사(에피포토 대표) 김진승 장로(전 문인협 회장)가 맡아 수고했다. 한편 2015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1일(월) 오전 11시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JJ Grand Hotel(620 S. Harvard Blvd, LA)에서 열린다. (이성자 기자)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린 2015 LA동부지역연합 성탄연합성가제에서 글로벌선교교회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다

수준 높은 찬양...9개 찬양대 참가

2015 LA동부지역연합 성탄연합성가제 성황

LA동부지역 교역자협의회(회장 송병주 목사)가 주최한 2015 LA동부지역연합 성탄연합성가제가 6일 오후 4시40분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본회 총무 최준우 목사(엠마오장로교회) 사회와 선한목자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성가제는 아름다운교회, 유니온교회, 글로벌고태형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박준호 기자)

성한미교회, 엠마오장로교회, 선한목자교회 찬양대 등 9개 찬양대가 참가해 수준 높은 찬양을 선보였다. 또한 테너 김성록 집사가 특송을 해 성가제를 빛냈다. 한편 이날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LA동부교협의 교회연합과 2016년 사역을 위해 △LA동부교협 목회자들과 사모들, 그리고 성도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LA동부지역의 복음화와 자라나는 2세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LA동부교협 PK모임과 활성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에서 테러 그리고 종교적 갈등문제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국과 한국의 영적회복과 각성을 위하여 △이슬람 포비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중보와 위로를 통해 슬픔에 있는 백성들이 위로와 평강이 찾아도록 등의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했다. 이날 성가제는 연합성가대가 '할렐루야'를 부른 뒤 송병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세리토스지역 청년연합예배가 세리토스 OMC에서 열렸다

순수함과 열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라!

세리토스OMC 주최 세리토스지역 청년연합예배

세리토스중앙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가 주최한 세리토스지역 청년연합예배가 6일 오후 2시30분에 열렸다. 세리토스 OMC 청년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연합예배는 최순

환 목사(세리토스OMC 청년부 담당)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최순환牧사는 "성경에서 믿음이 반복돼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하면 믿는 자임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복된 소식은 멸망당할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라 말했다. 그는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영혼이 새롭게 되길 바란다. 믿음은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청년예배가 없거나, 필요했던 교회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순수함과 열정으로 채워 나가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련되어 세리토스 OMC를 비롯하여 아홉개의 교회가 참여했다. 다음 예배는 2016년 1월 3일 오후 2시 30분이다. (박준호 기자)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정기연주회 성료



목사장로 부부찬양단(단장: 정운두 목사) 2015 제8회 정기연주회가 29일 저녁7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합창단들은 "은 세상 위하여", "감사의 기도", "거룩한 주" 등을 불러 박수 갈채를 받았다. 한편 이순환 목사, 박재웅 목사, 박경숙 사모와 조이폴남성중창단이 특별출연했으며 전임 단장인 주재임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김인철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엔젤스극동성가단 출범예배에서 지휘자 조한우 교수가 특송을 하고 있다

엔젤스 극동성가단 출범 기념예배

극동성가단에서 이름 바꿔 새롭게 출발

엔젤스 극동성가단(단장 임현철 목사) 출범 기념예배가 엔젤스 교회(담임 윤종명 목사)에서 12월 1일 오후 7시30분에 열렸다. 윤종명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배현성 목사(베데스다교회)가

기도를, 유익근 목사(기감미주연회 원로)가 성경봉독을, 그리고 장태원 목사(LA세계선교교회)가 찬송의 복(창49:8-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엔젤스 극동성가단 지휘자 조한우 교수가 특별 찬양했

다. 이어 엔젤스극동성가단 교문 조원석 장로가 엔젤스극동성가단 소개를, 임현철 목사가 인사말을, 그리고 김인수 목사(전 장신대 총장)가 격려사를, 그리고 이윤서 목사(한국인선교회, 미성대학교 총동문회장)가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최한오 목사(나성성지교회, 미주예성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임현철 단장은 "엔젤스 극동성가단은 지난 1996년 8월 극동성가단으로 창단돼 정기연주회와 특별초청연주회를 해왔다"고 언급하며, "창단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계획을 갖고 엔젤스극동성가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엔젤스 극동성가단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과 소명이 주어지기를 소망하며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가슴과 마음을 전하며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GM 실행총무에 김종현 목사 선임

PGM선교회(국제대표 호성기 목사) 실행총무에 김종현 목사가 선임됐다. 이로써 지난 5월 이후 부재중이었던 실행총무가 12월부터 사

역을 시작하게 됐다. 선임 실행총무 김종현 목사에 대해 선교회는 김 목사가 "평신도 선교사로 현장경험은 물론 미국에

서 선교학을 전공한 선교의 헌신자"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PGM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더욱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PGM선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subscription rates for 1 year: USA \$100, Canada \$110, Korea/East Asia \$190, Europe \$190, N. America \$190, Africa \$190.

Subscription form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and checkboxes for subscription type and language preference.

E-mail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동부교계 기사판



프라이미스교회 설립 40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만찬  
프라이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 및 기념만찬을 갖는다. 일시는 12월 20일(주) 오후 4시 예루살렘 성전이다.

▲문의: (718)321-7800

## 교역자 청빙

시카고 헤브론교회(KAPC 소속)에서 파트타임 교역자를 찾고 있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역내용은 새벽설교 인도(주중 1회), 주일 선교회 성경공부 및 심방, 그 외 필요한 사역이다. 이메일 (kcriver1002@gmail.com)이나 또는 주소(511 N. Schoenbeck Rd., Prospect Hts. IL 60070)로 12월 31일(목)까지 서류를 보내면 된다. 홈페이지: www.hebron.org

▲문의: (847)394-8454

## 제5회 이웃사랑 나눔 축제

구세군 뉴욕한인교회(담임 이상정 사관)가 주최하는 "제 5회 이웃 사랑 나눔 축제"가 12월 19일(토) 11시부터 1시까지 본 교회(142-50 32nd Ave. Flushing)에서 열린다. 자선냄비의 성원에 감사해 주위 이웃들에게 점심식사와 선물을 증정하는 이 축제는 선착순 300명에게 티켓을 배부한다. 티켓 배부는 12월 7일(월)부터 12월 17일(목)까지 오전 9-12시 구세군 뉴욕한인교회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문의: (718)762-9613

#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로”

## 후리성제일교회 김정호 담임목사 취임예배

후리성제일교회가 지난 6일 김정호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김 목사는 6개월 부임해 담임목사직을 수행해왔다.

김정호 목사는 “어느 사람도 어느 교회도 절대로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후리성제일교회도 오늘이 가능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과 눈물과 희생이 있어 가능한 것이다. 취임하는 저 자신도 많은 선배 어른들의 이끌어 주심과 친구 동료들의 동지애와 교인들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가족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많은 감사를 했다”고 말하고, “처음 왔을 때는 교회 여기저기 자리가 잡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1달 전부터는 정말 언제 후리성제일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있을 정도로 평온과 평화를 느끼고 있다. 수고한 모든 교인들은 물론 부목사 전도사 등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린다. 저를 담임목사로 받아주시고 환영해주신 후리성제일교회 교인들께 감사드린다. 열심히 하겠다. 정말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취임예배는 뉴욕연회 한인교회 협회장 이용보 목사 사회로 기도 김효식 목사(북조지아연회 한인교회 개발위 총무), 환영의 말씀 조영진 감독(영상, 버지니아연회), 찬양 연합성가대, 설교 이훈경 목사(중북부선교감리사), 축하의 말씀 박정찬 감독(영상, 펜실베이니아 서스

해나연회), 정희수 감독(영상, 위스콘신연회), 취임예식 김성한 목사(뉴욕퐁아일랜드 서지방감리사), 위임물 증정, 권면의 말씀 이성현 목사(UMC, 한인총회 총회장), 김해종 목사(전 뉴저지연회감목), 장철우 목사(전 동북부선교감리사), 양춘길 목사(뉴저지필그림교회 담임), 특송 후리성제일교회 목회팀, 취임 인사말 김정호 목사, 감사의 말씀 강현석 장로(취임식 준비위원장), 축도 김종성 목사(전 UMC계전 교국 아메지역 총무)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념만찬은 다니엘조 목사 사회로 김한성 목사(UMC한인선교총무) 기도 후 아틀란타한인교회 목사의 특송(영상)과 신경하 감독, 박이섭 목사, 이희문 목사, 장학순 목사, 김일영 목사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이 “사랑으로”를 합창한 후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김성한 감리사의 진행으로 김정호 목사(왼쪽)와 황은숙 사모가 답변하고 있다.

# ‘섬김’과 ‘단합’ 기치로 출발

## 제29회기 뉴저지교협, 시무예배 및 이취임예배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의철 목사)가 지난 7일 뉴저지장로교회(담임 김도완 목사)에서 시무예배 및 회장과 실행위원 이취임예배를 드리고 제 29회기를 출범했다.

뉴저지 교협은 “다 함께 참여하는 교협, 서로 소통하는 교협”이라는 표어를 걸고 출발했으며 이의철 목사는 “뉴저지교협이 지역사회의 중심점 역할과 견인자 역할을 감당하고, 세속화와 인본주의로 훼손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역할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함으로 지역을 복음화 시키고, 교회가 연합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단과 사이비단체를 배격하며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삼삼줄 운동(전4:12)과 물방울 운동(마18:20, 시133:1)을 통해 ‘섬김’과 ‘단합’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와 후원이 필요하다.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뉴저지교협은 2016년 월별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월(신년감사 및 하례예배) △4월(부활절 연합새벽예배 및 봉사단체 후원) △5월(어린이찬양대회, 호산나청소년복음화대회, 원로 목사 위로회, 선교세미나) △6월(사



제29회기 뉴저지교협 시무예배 및 이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모수련회, 차세대 장학생 모집, 찬양단체 후원, 호산나복음화대회 준비기도회) △7월(호산나복음화대회 및 목회자 세미나, 기독교인 후원) △8월 북미원주민 선교 △9월 정기총회.

1부 예배는 안명훈 목사(부회장) 사회로, 찬양과 경배 인도 이준규 목사, 시무기도 정성만 목사(증경회장), 성경봉독 이정환 목사(서기), 찬양 뉴저지한인목사합창단(지휘 김중윤 목사), 말씀 신의철 목사(증경회장), 교협과 산하교회를 위한 통성기도, 헌금기도 유병우 목사(증경회장), 축도 김정문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신의철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시

는 지도자”(삼상13:14)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시무예배는 회기동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시는 말씀을 불

# “이 마지막 시대에 파수대 역할 하기를”

## 기독저널 창간감사예배 및 후원음악회

기독저널(대표 임성식 목사) 창간감사예배 및 후원음악회가 지난 6일 저녁 6시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렸다. 후원음악회는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 재즈뮤지션들이 담당했으며 게스트로 유상열 목사(리빙스톤교회 담임)가 색소폰으로 협연했다.

감사예배는 김재호 목사(시온산교회 담임) 사회로 기도 김진화 목사, 말씀 허결 목사(교협증경회장 단 의장), 헌금기도 박춘수 목사(뉴욕침례교회 담임), 특송 김봉규 목사, 축도 주진경 목사(본보 논설위원, 은목재플 대표)의 순서로 진행됐다.

허결 목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습2:1-3) 제목의 설교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테러가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회자, 셋째 화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나로 가는 목회자로 이끌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유원정 기자)



기독저널 창간기념예배 및 후원음악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고 충성하겠다는 결단을 요구한다. 임기동안 어떤 세상적인 상황에 두려워하거나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대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이며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전했다.

2부 이취임식은 인도 홍인석 목사(총무), 교협기 인계, 취임기도 정창수 목사(증경회장), 취임사 이의철 목사(회장), 축가 주정배와 김지은 집사, 축사 이종명 목사(뉴욕교협 회장), 실행위원 소개, 직전 회장과 평신도 부회장 그리고 총무에게 공로패 증정, 광고 정민영 목사(서기), 폐회기도 유재도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회장 이의철 목사는 뉴저지교협 직전 회장으로서 연합사업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이병준 목사에게서 교협기를 인계받았으며, 공로패를 증정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앞에 모여야 한다. 셋째, 하나님께 겸손히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독저널이 이 시대에 파수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는 김승희 뉴욕교협 증경회장, 이종명 뉴욕교협회장, 김영환 뉴욕목사회장이 맡았으며 축사를 맡은 윤영미 시인은 정시에 도착하지 못해 음악회를 마친 후 마지막에 낭송했다.

음악회는 네델란드 Prins Claus 컨서버토리 동문인 피아노 최윤미, 드럼 이재민, 베이스 안드레아와, 색소폰 유상열 목사가 합주했다. 이날 연주곡은 모두 찬송가로 잘 알려진 10곡을 재즈버전으로 연주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보라”, “날 사랑하심”, “To My Lord”를 연주한 후 색소폰(유상열 목사)이 함께 “Deck the hall”, “In the garden”, “Joshua fit the battle of Jericho”를 연주했다.

이어서 3명이 “화이트크리스마스”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정글벨” 등 캐롤을 연주해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맞보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임성식 목사가 직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을 전했다. 임 목사는 “창간 16주년 322호를 발행하며 교계와 사회의 부조리와 맞서며 이단의 사설들과 대결해왔다”며, “신념이나 주장은 다를 수 있지만 진실은 하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이 기독저널을 통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뜻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참을 기다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유원정 기자)

# 뉴욕목사회 제44회기 임원진 구성

## 총무 김진화, 서기 유태웅 목사

뉴욕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임원진을 선정하고 제 44회기를 출범했다. 오는 21일에는 회장 취임 임식도 갖는다.

올 연말부터 2016년도를 운영할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영환 목사(뉴욕효성침례교회 담임) △부회장 김상태 목사(뉴욕주님의교회 담임) △총무 김진화 목사(미래비전교회 담임) △서기 유태웅 목사(라이프라이프선 대표) △회계 최현준 목사(로렐교회 담임).

회장 이취임 예배 및 시무예배는 12월 21일(월) 오전 10시 뉴욕효신

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갖는다.

회장 김영환 목사는 지난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뉴욕의 목사님들을 잘 섬기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다”며, “첫째 기도로 하는 목회, 둘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회, 셋째 화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나로 가는 목회로 이끌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유원정 기자)



교회내 갈등예방과 치유 세미나에서 강사 조남홍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 교회내 갈등...성공적 목회에 영향

## 미동부생명의전화, 예방과 치유 세미나

교회내 갈등예방과 치유 세미나가 지난달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뉴욕그레이트네교회(담임 양민석 목사) 교육관에서 열렸다.

교회문제연구소 소장이자, PCUSA 한인총무를 15년 간 역임한 조남홍 박사와 연합칼리교 장인목회강화협의회 사무총장 장학순 목사가 강사로 나선 세미나는 이민교회 갈등문제 치유를 위한 강연과 상담, 역할극 등으로 구성됐다.

30일 진행된 역할극은 한 교회에 교육전도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뜻이 제각기 다른 장로 4명과 담임목사의 역할을 세미나 참가자들이 맡

아 상황극을 꾸며보고, 관객과 함께 평가했다.

조남홍 목사는 세미나에 대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갈등으로 변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지, 갈등의 증상, 타임, 주기를 단계별로 이야기 해보았다. 또 갈등을 겪고 있는 감정을 대한 분석, 역할극으로 마무리 했다”고 설명하며, “갈등은 놔두면 해소될 수도 있으나 파괴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갈등을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잘 관리해서 교회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말했다.

장학순 목사는 ‘화해와 갈등 회복에 대한 주제’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갈등을 이해해야 한다. 갈등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발전을 위한 단계일 수 있다. 오늘 갈등의 12단계 설명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사과의 진정한 의미와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영호 목사(미동부생명의전화)는 세미나의 취지에 대해 “뉴욕 일원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내 갈등 때문에 고심하고 있고, 여러 교회들이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3박4일 간 갈등 치유 세미나를 참여한 경험이 있어, 93년도부터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교회 내 갈등이 성공적인 목회를 좌우한다고 보고, 이민교회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틀 간 오전 9시 33분부터 오후 4시33분까지 △화해 사역과 갈등의 이해 △교회싸움이라고? △어떻게 이기느냐고?-기술을 전수하라 △관계회복과 갈등의 극복 등 네 가지 제목으로 두 강사가 번갈아 강의했다.

(기사제공: 미동부생명의전화)

# 하나님의 구원계획

## GPS CENTER 센터

강사: 라희채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함!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더욱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 제25대 OC교협 이취임 감사예배

제25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 협의회 이취임 감사예배가 '더욱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6일 오후 5시에 열렸다.

민승기 신임 OC교협회장은 취임사에서 "2016년 OC교협은 지역사회 복음화와 전도와 사회봉사에 있어서 교회들이 연합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 내 모든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나라를 위해 충성함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1부 예배는 나침반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후 목사(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시작, 객재필 목사(OC목사회 회장)가 기도를, 윤우경 회장(OC평신도연합회 회장)가 성경봉독했으며 김우영 사모가 특송했다. 이어 진유철 목사(남가주교협 중경회장)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현철 목사(교육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2부 축하프로그램은 직전 회장 김기동 목사가 이임사를, 그리고 신임회장 민승기 목사(갈보리새 생명교회 담임)가 취임사를 했으며 교협이 이양 시간을 가졌다.

이어 김기동 목사, 이임이사장 엄영민 목사, 그리고 이임 후원이사장 이범식 장로에게 공로패를, 민승기 목사와 이사장 민경엽 목사에게 취임패를, 그리고 분회 후원이사장 이

중열 장로에게 추대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민경엽 이사장이 이사장 인사 및 이사소개를, 후원이사장 이 중열 장로가 후원이사장 인사 및 후원이사 소개를 했으며, 영감 가수 하원의원, 김기동 OC한인회 회장, 권석태 OC & SD 평동회장, 임덕순 미주복음방송 사장, 그리고 한광성 통일교육위원회 LA지회장이 축하했다.

이날 민승기 회장이 임원소개를 하고 OC원로목사회 회장 최승구 목사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박준호 기자)



OC교협 이취임식에서 신임회장 민승기 목사가 이임회장 김기동 목사에게 교협기를 이양받고 악수하고 있다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수퍼세터데이 제15차 발표회에서 오케스트라 과정 학생들이 연주하고 있다

# 주산, 북클럽, 한글... 시상식도

## 주님의영광교회 15차 수퍼세터데이 종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교육국(담임 이희갑 목사)이 실시하고 있는 토요일교인 수퍼세터데이 15차 마지막 날 프로그램이 5일 오후 12시 본 교회 호프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프로그램은 그동안 각 과정별로 배운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희갑 목사는 "수퍼세터데이 프로그램은 3년 전 시작돼 총 15차례 진행해왔다"며, "처음에는 10주 과정으로 진행해오다 작년부터 학기제로 전환해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 목사는 "수퍼세터데이는 총 12개 과정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15차 과정은 지난 8월말 시작해 12월초까지 14주 동안 모였다. 또한 매주 성경구절을 암송케 하고

그것을 마지막 주에 학생들이 발표하도록 하고 선물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회는 기타, 주산, 북클럽, 한글, 아트, 워십댄스, 그리고 오케스트라 반에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발표했으며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은 출석상, 모럴케터 상(정직하고 학급동료들을 잘 도와준 학생에게 주는 상)과 퍼포먼스 케리터 상(성적이 아닌 매주 학급에서 노력해 학업성취를 높인 학생에게 주는 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성경암송시간을 통해 많이 암송한 학생에게 상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수퍼세터데이 16차 과정은 2016년 1월 13일부터 시작된다.

(박준호 기자)



제19회 필그림 CCM찬양경배자학교가 동부장로교회에서 열렸다

# 정세광 박사 "찬양팀 본질의 자세" 강의

## 제19회 필그림 CCM찬양경배자학교

제19회 필그림 CCM찬양경배자 학교가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부장로교회(담임 이용규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정세광 박사(캘리포니아 아트 유니버시티)가 '찬양의 본질자세', '예배와 회중찬양', '찬양팀과 워십리더', '찬양선곡 및 콘티법', 그리고 '찬양인도법'(이론 및 실기)을 강의했으며 조셉김 교수가 'CCM밴드와 싱어, 찬양팀의 기능적인 문제'를 강의했다.

이어 테너 김성록 집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작곡한 김지민 씨의 미니 찬양콘서트가 열렸다.

정세광 교수는 "오늘 이 모임에는 목회자들이 많이 왔다. 목사님들이 찬양을 바로 알아야 찬양팀을 인도할 수 있다. 오늘은 기능보다 찬양팀 자체 본질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필그림 CCM찬양경배자학교가 8년 만에 LA에서 열렸다. 앞으로 LA에서 지속적으로 열

려고 한다. 다음 모임에는 오늘 참석하신 목회자들을 통해 찬양 영역자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들과 함께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 유스타미디어 주최 기적콘서트

## 유리상자 이세준, K팝스타 존추 출연

유스타미디어(대표 박상균)가 주최한 기적콘서트가 5일 오후 6시30분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개최됐다.

기적콘서트는 유리상자 이세준 씨의 콘서트로 열렸으며 수화찬양인도자 김은정 씨가 수화찬양을, K팝스타 시즌4 탑10 진출자 존추 씨가 찬조 출연했다.

이세준 씨는 "따뜻한 마음으로 모여 따뜻하게 공연했다"며, "좋은 공연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관객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 그리고 공연장이 교회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공연 시간 내내 계속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 든든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공연은 이세준 씨 자신의

히트곡인 '사랑해도 될까요', '널 위한 멜로디'와 불후의 명곡에서 불렀던 '눈', '노란사쓰의 사나이'를 불렀으며 강준가를 편곡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와 복음의 내용을 담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야기들을 불렀다.

한편 이날 유스타 미디어는 비영리단체인 Ktownhope와 함께 백혈병 병 동혈액 환자를 돕는 '아시아 골수기증협회(A3M)'를 초청해 골수기증등록 캠페인을 함께 열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LA동부교역자협의회 정기총회

LA동부교역자협의회(회장 송병주 목사) 정기총회가 14일(월) 오후 6시 Ceder Creek Inn-Brea(20 Pointe Drive, Brea, CA)에서 열렸다. ▲문의: (714)623-8267

## 다큐영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상영

다큐 영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가 남가주지역 교회에서 상영된다. 이 영화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동성애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동성애를 이겨낸 탈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영화는 LA 지역에는 주님의 영광교회, 사우스베이 지역에는 주님세운교회, 치노힐 지역에선 선한목자교회 그리고 OC지역에 UBM교회에서 상영된다. 시사회는 12월 8일 오후 6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714)501-1377

## 크리스천윙클리, 종교개혁발상지 2차 여행 참가자 송년모임

지난 10월에 실시된 크리스천윙클리(발행인 조명환 목사) 주최 종교개혁발상지 제2차 학습여행참가자(솔라5클럽) 송년 및 화보집 발간 축하 모임이 오는 12월 15일(화) 오후 5시 LA코리아타운 소재 UCS 대학교 채플에서 열렸다. 회비 20달러. ▲문의: (213)383-2345



LA지역 작은교회 연합 삼삼오오 찬양예배가 하나크리스천센터에서 열렸다

# "작은 교회들이 모여 함께 찬양예배 드린다"

## LA지역 작은교회 연합 '삼삼오오' 찬양예배

LA 지역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찬양예배를 드리며 친교를 나누는 '삼삼오오 찬양예배'가 지난달 2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하나크리스천센터(담임 이용욱 목사)에서 열렸다.

809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용욱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삼삼오오 찬양예배는 환영 및 안내의 말씀과 예배개회의 취지에 대해 박세현 목사(예수교회 담임)가 전했으며, 허빈 목사(새로워지는교회 담임)가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영3:8-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마원철 목사(Remedy 대표)와 8090찬양팀이 특송을, 송일용 목사가 마무리기도를 했다. 예배 후에는 커피와 스낵을 나누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삼삼오오 찬양예배는 2016년에는 다섯 번째 주일 오후(1월 31일, 5월 29일, 7월 31일, 10월 30일)에 드릴 예정이다. 1월 31일 예배장소는 추후 공지된다.

(기사제공: 삼삼오오 찬양예배)



유스타미디어 주최 기적콘서트에서 유리상자 이세준씨가 공연하고 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p><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722-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영양예배: 오후 2:00(영성)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오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청년)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p>	<p><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영성): 오전 5:30 평일영양예배: 오후 7:30 EM, 대학부: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b>남가주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영양예배(영성): 오전 5:45(월-토)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영성)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전 7:30</p>	<p><b>동문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향해 있는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b>드림교회</b> 담임목사: 정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목요예배: 오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2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성인영양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양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1:00(수요예배: 오후 7:30)</p>	<p><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p>	<p><b>열매교회</b>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b>일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성)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영양예배: 오후 6:00</p>	<p><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토요영양예배: 365일 24시간</p>	<p><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토렌스주요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 “경제 몰입된 단기적 시각 곤란”

#### 교계 우려...KBS '18억 이슬람 시장...' 다큐에

KBS 1TV가 지난 5일과 6일 방영한 다큐멘터리 '18억, 이슬람 시장이 뜬다'에 대해 교계의 비난이 드세다. 이슬람 문화 유입에 따른 한국사회 지각변동의 위험성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경제적 이익을 우선해 제작했다는 이유다. KBS는 우선 이슬람, 종교가 아닌 비즈니스로 '2700조, 할랄푸드 시장을 잡아라' 등의 내용을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슬람을 비즈니스 대상으로 삼고, 할랄(halal)푸드에 한식의 진출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담았다. 18억 이슬람 인구 그리고 세계 식품 시장의 17.7%(2700조원)를 점유하고 있는 할랄 식품 및 제품 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져서 안된다는 의도를 담았다. 오는 13일 3편에서는 '미래의 블루오션, 무슬림 관광시장'이 전파

를 탄다.

이에 교계관계자들은 “방송매체가 경제적 이익만 우선한 단기적 시각을 제시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식품 및 생활용품의 수출 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이면에 발생할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계관계자들은 먼저 할랄푸드의 생산증대로 인한 무슬림의 증가를 문제로 꼽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UAE)와 '할랄식품' 인증 협력 협정을 맺고, 할랄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기업들이 할랄 인증을 한 한식을 생산한다면 한 해 100만명에 이르는 무슬림 관광객과 국내 거주 무슬림 20만명도 할랄 식품의 대상자가 된다.

장훈대 백석대(신교학) 교수는 “할랄푸드는 이슬람올법(샤리아)에

의해 허용된 식품으로 무슬림은 이를 먹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내 할랄푸드 산업이 커지면 무슬림 생산인력과 감독자 등의 대규모 유입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할랄푸드 산업을 위해 한 도시나 지역을 클러스터화 할 경우 무슬림 인구가 밀집 돼 슬럼화, 테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성서화운동본부 이슬람전문위원 백관현 목사는 “정부와 산업계는 할랄푸드를 통해 수출의 길을 열려는 반면 이슬람의 다이(포교사)들은 할랄을 매개로 국내를 이슬람화 하려 할 것”이라며 “할랄푸드에 이슬람법에 의해 도축되므로 특정 종교에 대한 확산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할랄푸드를 생산·수출하려면 ‘할랄 인증’이 필수다. 국내에서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유일하게 인증을 하고 있다. 이에 이슬람의 포교활동에 정부와 업계의 후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병대 한국교회연론회 사무총장은 “특정종교의 음식문화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조하고 후원하게 되면 ‘종교편향’의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법의 국가들 특히 영국처럼 샤리아 법정이 세워질 경우 이슬람 법원에 의해 다스려지는 지역이 생길 것”이라며 “프랑스처럼 이슬람 과격분자들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이탄인교회 이만석 목사는 “이슬람은 (한국)정부 등에 업고 오일 머니를 들어와서 한국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젊은세대부터 점령할 것”이라며 “국가 기간 방송인 KBS가 특집 다큐를 통해 이슬람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하면 다른 미디어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시급히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제29회 기독교문화대상 수상자 확정

#### 박종구 목사, 안준배 목사, 박은석, 송정미

기독교문화예술원(이사장 권태진 목사)이 제29회 기독교문화대상 음악 영화 방송 문학 4개 분야의 수상자를 확정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기독교정신을 담아낸 작품과 작가를 선정, 발표된 작품을 관련기관과 전문인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를 거쳤다.

수상자와 작품은 기독교적 주제 의식과 메시지를 담아서 일반적인 공감을 얻은 작품으로 사회적 객관성과 수상자들의 문화공헌도를 중시하여 선정됐다. 2015년도 수상작은 인간과 하나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내연하고 외연을 넓혔다.

선정된 각 부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문학부문 시집 “그러므로 사랑은” 시인 박종구 목사 ■연극부문 예술평론 “예술무대, 빛과 어둠” 평론가 안준배 목사 ■뮤지컬부문 뮤지컬 “추종골씨” 연기자 박은석 ■음악부문 ‘축복송’ CCM 아티스트 송정미.

기독교문화대상은 1983년 제정돼 27회에 걸쳐 국내 최정상급의 문화예술인을 선정 시상해 기독교문화예술이 심층 확대되는데 기여해왔다. 수상자에게는 상금300만원과 상장, 메달,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2016년 2월 25일 열린다. (기사제공: 기독교문화예술원)

### “시행 전 합리적 근거부터 마련”

#### 한국교회연론회, 종교인 소득세 과세 논평 발표

한국교회연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6일 ‘종교인 소득세, 기독교 반대는 과세의 법적 근거 미비 때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2018년 성직자 과세 전까지 적법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회연론회는 “정부가 해방 이후 70년 가까이 종교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은 성직자들의 삶이 빈한(貧寒)했을 뿐더러 그 삶이 사회를 위한 헌신적 삶이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특혜를 주기 위한 정치적 이유도,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몇 푼의 소득세를 내기 싫어서 반대한 게 아니라 세금 부과를 위한 합리적인 범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성직자들의 입장은 특별한 대우나 비교사

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고 과세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회연론회는 또 정부에 극빈층에 속하는 목회자들의 복지대책 수

요를 통한 과세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교회연론회는 “근로소득자는 일정 소득기준에 미달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만 성직자의 생활비는 기타소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극빈 성직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면서 “별도의 성직소득세 항목에 따라 극빈 성직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종교인이라는 단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명사이지 성직자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다. 게다가 종교인 소득세라며 비정기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세 항목을 만든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향후 2년간 합리적인 논쟁과 대화로 적법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육행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총회교육진흥원에서 개발한 계절공과와 절기자료 등 교육콘텐츠도 열람·사용할 수 있다. 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다룰 수 있다.

노재경 총회교육진흥원장은 “세미나 등 고비용 구조로 교회교육 콘텐츠를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방송시스템을 활용해 양질의 기독교 교육 콘텐츠를 잘 빠르게 생산·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 예정합동 ‘생명의 빛’ 인터넷 방송 개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이 스마트폰용 교육용 영상 제작·보급을 위해 ‘생명의 빛 방송국’을 6일 개원했다. 예정합동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본부 3층에 설치된 방송국에서 교회교육·이단예방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애플리케이션(앱)과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일부 콘텐츠는 유튜브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박무용 총회장은 ‘생명의 빛 방송국’ 개원 예배에서 “미디어가 급변하는 시대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바란다”면서 “특히 다음세대에 신앙을 효과적으로 전수시키는 도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생명의 빛 방송국’ 앱에선 총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세미나와 교

나다고 믿었고 손을 대자마자 병이 나았다”며 “희망을 갖고 믿음을 말로 시인하면 꿈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또 “4차원 영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이끄는 힘”이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14기 원우회장인 장영선 (쥬마루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조용기목사상을 수상했고, 국달범 그레이스빌 대표와 오세익 총복신학교 이사장은 총장상을 받았다.

2007년 4월 출범한 4차원 영성 최고 지도자과정은 14기를 포함해 총 54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국회의원과 CEO 변호사 의사 건축사 언론인 연예인 교수 목사 등이 망라돼 있다.

15기 과정은 내년 5월 16일부터 14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국민일보 빌딩에서 진행된다.

### 국민일보·한세대 공동개설 ‘4차원 영성 최고 지도자과정’

#### 14기 43명 졸업식...15기 과정 내년 5월 16일 개강

국민일보와 한세대대학교가 공동개설한 ‘4차원 영성 최고 지도자과정’ 14기 졸업식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열렸다.

4차원 영성은 ‘생각·꿈·믿음·말’이 바뀌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의 신학적 리더십이다. 최고 지도자과정은 4차원 영성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적용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14기 졸업생은 김한태 순복음예일교회 담임목사와 안재삼 (쥬브니엘월드 대표, 김호윤 한세대 교수, 조용태 국민일보 편집인 등 43명)이다.

이날 졸업식 특강에서 조 원로목사는 마태복음 9장을 통해 4차원 영성의 능력을 강조했다. 조 원로목사는 “열두 해 동안 혈투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나았다고 믿었고 손을 대자마자 병이 나았다”며 “희망을 갖고 믿음을 말로 시인하면 꿈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또 “4차원 영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이끄는 힘”이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14기 원우회장인 장영선 (쥬마루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조용기목사상을 수상했고, 국달범 그레이스빌 대표와 오세익 총복신학교 이사장은 총장상을 받았다.

2007년 4월 출범한 4차원 영성 최고 지도자과정은 14기를 포함해 총 54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국회의원과 CEO 변호사 의사 건축사 언론인 연예인 교수 목사 등이 망라돼 있다.

15기 과정은 내년 5월 16일부터 14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국민일보 빌딩에서 진행된다.

###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면에서 계속)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셨으며,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지만 각각 구별되셨다.

최대교회에 등장한 이단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들을 313년을 전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전에는 주로 1)그리스도의 신성과 2)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등장하였다. 이후에는 3)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해 거짓증거를 하는 이단이 출현하였

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의 오류는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부류는 역시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지주의로 볼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육신은 하늘에 속해있으며, 사람들의 눈에 단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단의 공격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리스도의 신성 또는 인성만을 인정하는 믿음의 뿌리가 결코 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 교회의 전통에서 기독교인이 형성되기 이전, 이단의 공격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자체를 흔

들어놓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인성 또는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의 출현으로 인하여, 자연히 교부들은 신학적 고민과 함께 기록된 형성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결과, 313년 이전에 형성된 기록본은, 이단의 출현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확고한 성경적 기초에 근거하며 발전하게 되었다.

2) 성경이 보인다 - 마태복음 16:16; 요한복음 1:14; 요한복음 20:30-31

어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어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어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3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718)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Fort Washington, NY 11505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주일학교: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nd, Flushing NY 11358 chungkilee@yahoo.com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 (KT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	<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org	<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EWM 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dcchurch.org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9: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신앙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영어: 오후 12:30 주일학교영문: 오후 1:30 수요일 안침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b>롱아일랜드성결교회</b>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9: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목사님: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b>에벤에셀선교회</b>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8:0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http://emcnyc.us/	<b>에사라교회</b> 담임목사: 손환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b>윈즈턴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org	<b>윈즈턴교회</b>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skm@gmail.com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 선교중국2030 선교대회-2만명 중국선교사 파송(2)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필자는 강연을 통해 중국교회에 3개의 중요한 도전을 강조하였다.

첫째로, 한국교회는 중국교회로부터 그들이 갖고 있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영성부흥을 배워 한국교회가 전에 갖고 있었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하며 반면에 중국교회는 한국교회로부터 두 가지 배워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교회의 열정적인 선교운동과 교회 지도자 양성(신학교육)인 것이다. 중국에 56,000개가 되는 삼자교회와 10만-20만개의 가정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 양성은 심각한 문제인 것

역의 결론이 없이 막을 내렸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어야라”(31절). 사도행전만이 신약에서 “결론이 없는 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선교사역을 이어 계속 오늘날까지 선교사역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이 되므로 중국교회 선교사역도 사도행전 29장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온누리교회 선교목사인 이재환 선교사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캄비아에서 17년 선교사역을 하였

△중국교회 성장을 위한 선교운동 △중국교회의 국제화 △중국교회와 선교 △중국 선교전략 등이었다.

해외의 선교단체들 중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들이 주동이 되어 워크숍을 지도하였다. 참석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란 교회 워크숍에 참석하여 이란교회의 현 상황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또한 오늘의 매스미디어 선교 워크숍에 참석하여 연장선학과 온라인교육 On-Line Education에 사용되는 많은 인터넷 자료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

에서 BJM을 많이 강조하였다. BJM의 대표자인 중국 가정교회 목사는 앞으로 중국교회의 선교가 중동지역과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국교회 선교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복음이 중국을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성기도를 인도하였다. 이들은 중국교회 복음사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운동이 일어나기 위하여서도 통성기도를 하였다.

#### 4. 저녁 간증의 시간

### 한국교회는 중국교회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영성부흥 배워야 중국 700개 신학교 선교학교수 배출·교회지도자 양성시급

이다. 현재 중국정부의 반 기독교적 정책 하에 중국내에서의 교회 지도자 양성과 선교사 양성은 제한되어있으므로 중국신학생들을 외국(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유럽 등)에서 훈련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둘째로 중국교회가 2030년까지 2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서는 중국의 700개 신학교에서 선교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을 배출해야 하며 앞으로 중국교회 선교활동이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선교운동이 지난 40년을 거쳐 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한국세계선교협회(KWMA)와 북미세계선교협회(KWMC)를 통하여 오늘의 선교전략이 이루어진 것을 중국교회가 잘 연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필자는 중국교회와 한국교회가 앞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간의 도움을 주고 받기를 원한다. 중국은 한국의 열정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중국교회와 한국교회 선교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온누리교회의 이재훈 목사는 “사도행전 29장”을 강조하였다. 고 하영조 목사가 강조한 제목을 이재훈 목사가 이어 받아 자기교회를 중심으로 열렬한 선교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29장”의 메시지는 사도바울의 선교사

므로 앞으로 중국 선교사가 아프리카 대륙에 많이 파송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하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목회하고 있는 Francis Chen 목사는 시들여가고 있는 미국교회는 살아있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교회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기독교의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로서 19세기 20세기에 하나님을 귀히 쓰는 국가로 사용되어 왔으나 오늘의 미국은 물질만능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인하여 기독교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하며 중국교회의 영성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후시간에는 49개 다양한 워크숍Workshops이 있었다. 예를 들어 △선교전략 △탁월한 선교생활의 실제 △문서선교 △대학생선교 △선교와 펄박 △선교의 가능성 성경세계관과 문화선교 △중화교회 선교협력 △이란의 가정교회 상황 △파키스탄선교

2. 선교 워크숍

이런 선교중국 2030선교대회



3.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선교운동 강조

Back to Jerusalem Movement(BJM)의 시초는 1943년 중국 상시성에 편전복음단 중심으로 일어나 산동성까지 퍼지게 되었고 농촌의 가정교회가 주동적 역할을 해왔다. 이들의 선교목적은 복음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세기 때 유럽으로 건너갔고 17세기부터 북미를 점령하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 복음이 특별히 아시아의 최대국가인 중국교회를 거쳐 중동지역과 중앙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다시금 복음의 근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지역집회는 간증의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장을 울리는 중국기독교인의 열정적인 통성기도는 한국교회의 통성기도와 비슷하였다.

첫날 저녁에는 중국내의 미전도종족 복음화를 위한 간증시간이었다. 중국의 14억 인구 중 13억의 인구가 공산치하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서 먼저 민족복음화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서부에 있는 신장성의 1,000만의 인구는 대다수 위구르족속으로 무슬림지역이다. 기독교인의 수는 약 2,000명(0.003%)밖에 안된다. 그곳에서 한 무슬림 영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 위구르 동포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다는 간증을 하였는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둘째 날 저녁에는 중국선교사들이 중국내외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간증을 하였다. 언어와 풍속이 낯선 아시아의 여러 선교지에서 고생을 하며 복음을 원주민에게 전했다는 간증은 참석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현재 중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의 수는 약 400-500명이 된다고 하였다. 중동지역에서 선교하는 한 중국선교사에게 원주민이 말하기를 “이곳에 한국에서 온 선교사는 없습니까?”라고 하였다.

### 본사 방문

### “선교영화를 복음전파의 도구로”

김한백 선교사(문화동원연구원 대표)



“기독교영화가 아닌 선교영화를 만들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문화와 문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선교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의식입니다”라고 말씀을 여는 김한백 선교사. 그는 사회주의나 이슬람국가, 힌두교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안은 문화를 통한, 영화를 통한 방법뿐이라고 강조하며 문화사역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 선교사는 1986년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대신 교도소 사역에 전념했다. 그곳에서 한 조선족을 만나 중국을 마음에 품게 됐고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중국 방문 길에서 신앙생활을 3년 했다는 한 성도를 만났는데 뜻밖에 질문을 받았다. 그 질문은 바로 “주님이 어디 ‘주씨냐?’”는 것이다. 그 질문을 받는 순간 김 선교사는 충격을 받았고 이곳에 와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겠다는 각오로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선교는 쉽지 않았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지만 그는 닦치는 대로 북한 탈북자, 조선족, 중국의 소수민족

### 미전도 종족에게 문화사역으로 다가가야

을 상대로 끊임없이 성경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러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던 그는 2003년 영화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다. 이 비전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2005년에 교단 선교국장에게 자신의 심정을 전하며 “주님께서 영화를 만들 비전을 주셨다”고 하니 한마디로 “미쳤나?”는 반응이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그는 안타까움을 안고 중국으로 돌아가 선교사관 이름대신 문화동원연구원 소장으로 새롭게 시작했다. 그리고 LA를 방문하여 실리콘밸리미션을 설립했다.

그 당시 김한백 선교사의 “피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서기 635년 당나라에 “경교”라는 명칭으로 전파된 고대 기독교의 전파과정과 당시의 신앙생활을 조명하고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더해져 종교성이 강한 중국인들의 심금을 울리게 하고 중국인이 변화되도록 복음지향적인 내용을 소설로 엮어낸 것이다. 이 책을 영화화하기 위해 하리우드를 찾았고 거의 성사된 상태였으나 펀드가 조성되지 않아 결국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영화의 꿈은 소멸 모른다. 그래서 오늘도 동분서주하며 이 사역에 동참할 손길들을 찾고 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류에 대한 감지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는 한류의 열풍이 대단합니다. 오래된 ‘대장금’이 방영될 때는 후진타위가 대장금을 보았다고 할 만큼 인기가 높고 2013년 말 ‘별에서 온 그대’의 방영은 대장금을 본 숫자보다 3-4배가 될 만큼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드라마 주인공이 도중에 찬송을 한 소절 부른 다거나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만 나온다면 그 영향력은 대단할 것입니다”라고 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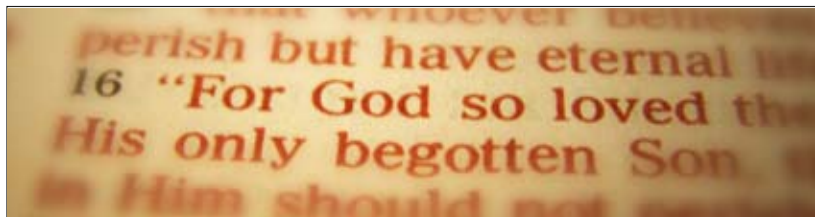
김한백 선교사는 지금 ‘고선지’를 시나리오와 소설로 준비하고 있다. 이 내용의 주인공 고선지는 고구려 유민세계 전쟁사회의 나팔레옹보다 유명한 사람이다. 고선지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수십 국에서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한 사람이다. 김 선교사는 지금 고선지라는 인물을 소재로 고선지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재로 바꾸면서 준비하고 있다. 고선지라는 영화가 만들어지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그는 확신한다.

(14면으로 계속)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덴버에덴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세환 영어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p> <p>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www.kopscschurch.org</p>	<p><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891, 267-471-7777 Fax. (610)222-08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중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1946s.com</p>	<p><b>벤델교회</b>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부흥예배(영):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총동무회: 오전 10시, (만: 오전 11시) 유치, 유년노부: 오전 10:00</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ingham, MA 01946</p>	<p><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Tel. (704)529-0900 / 0998(팩스 전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opscschurch.org</p>	<p><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p>	<p><b>알칸사 제자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1946s.com</p>	<p><b>앵커리지델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b>엘파스델린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b>킬린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부흥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aletre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www.l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p>	<p><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영어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복음서 이야기 (3)



**박시경 박사**  
(그레이스신학교 선교학교수)

### 제 3화 예수님과 유월절

마6:25-34절 말씀은 주옥같은 산상보훈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

타인 지방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유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것은 마치 한반도가 강대국 중국과 일본의 사이

대왕의 아들)는 갈릴리 호수에서 4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세포리스라는 지중해 연안 도시에 거대한 요새를 건설하게 된다. 당연히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했고, 그 예산은 고스란히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의 몫이었다. 로마정부에, 유대정부에, 심지어는 유대인 성인 남녀는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바치는 세금을 위해 반세겔짜리 동전이 따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저들에게 부과된 세금의 종류는 다양했고 무겁기만 했다.

그 당시 갈릴리 지방 농토의 대부분은 유대인 귀족 세 가문이 독점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지방 농민의 대다수는 소작농으로서 수확물(보리, 밀, 올리브, 포도 등)의 많은 부분을 지주에게 바치고, 남은 수확물을 팔아 피 같은 세금을 바치고 나면, 식물들을 먹어 살리기에 급급한 형편이었다. 이나마도 형편이 안되어 세금이 채납된 농민들은 자녀들을 종

리새인들 같은 고위 성직자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유대인들 절대다수는 히브리어를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저들은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힘없는 들쭉과 같은 민초들이었다.

그런 저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런 일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유대민중들을 앞에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주시는 것이다. 험벗고, 가난하며, 학대받고 있는 동족들을 향하여 의식주 같은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다. 마찬가지로 청년 예수도 어린 시절부터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우면서 손마디가 굳은살이 박혔고, 노동으로 다쳐진 몸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비록 나사렛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전 생애를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이 쓰는 갈릴리 방언(사투리)이 몸에 배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유대지방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단번에 그가 나사렛 출신인 줄 알았고, 평범한 유대인들을 그들 '나사렛 예수'라 불렀다. 심지어 나다나엘 같은 순순한 영혼의 소유자마저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요1:46)라고 나사렛 지방과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금도 나사렛 지역은 아랍인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는 지역이어서 평균소득이 이스라엘 전체 평균소득보다 훨씬 낮다. 예수님 당시에는 나사렛 지역과 여타 지역의 소득편차가 더 심했다. 가난한 나사렛 지역에서 온 목수 출신의 이 젊은이는 부드러우나 확신과 권위를 찬 목소리로 여태껏 유대인 바리새인이나 그 어떤 종교지도자들도 언급하지 못한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태껏 365개 조항에 이르는 복잡한 모세의 율법에만 얽매어 살던 유대인들은, 들만에 앉아서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가리키며 실물교육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는가? 그는 계속 말씀하신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쭉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6:30).  
이메일: parkss@grace.edu

(13면에서 계속)  
김한백 선교사는 "시나리오는 내년쯤에 완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21세기 선교는 미디어를 통한 선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 제가 교회 가서 '영화 만들어 선교하겠다'고 하면 동조하는 분이 적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하게 주신 비전이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지요. 제가 열매까지 보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이제 그 열매는 후대가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라고 말한다.

그는 2005년부터 문화동원연구소라는 이름을 한국도서출판에 등록하고 사용해오다 올 초 그 이름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단체를 통해서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자본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는 꿈을 피우고 있다.

세상에는 기독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영화는 기독교가 인정되는 곳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 이슬람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상영할 수가 없다. 진정으로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선교영화를 만들어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미디어를 통한 선교를 선교라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지요 지금까지 통상적인 선교방법에 따라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회주의, 이슬람, 힌두교 등 50억 정도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러리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지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줘야 하는 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이 문화사업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선교의 대안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 답은 문화동원 선교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엔 미진도 종족에 대한 애뜻함이 식을 줄 몰랐다.

김한백선교사 연락처:  
hanmackim@hanmail.net  
(이성자 기자)

##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내용뿐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야 끼니 걱정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선포

하여 무엇을 입을가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신약성경에서 이 말씀만큼 아이러니한 말씀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fertile crescent)'이라고 불릴 만큼 주변 나라들에 비해 농사에 유리한 곳이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200여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 노예들은 꿈에도 그리던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동경했던 것이다. 게다가 교통의 요지로 근동지방의 강대국들이 군사 원정 시에는 반드시 팔레스타인 지방을 거쳐 갔기 때문에 팔레스

타인 지방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유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것은 마치 한반도가 강대국 중국과 일본의 사이

에서 수 없이 유린당한 역사를 가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 당시, 1세기의 팔레스타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당시의 세계를 재패한 막강한 로마제국의 식민지였으나, 그 이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주도한 그리스(헬라) 제국의 식민지로, 그 이전은 페르시아(바사)의 통치를 받았고, 또 그 이전에는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포로로... 끊임없는 수난의 역사는 예수님 당시까지 수백년간 계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는 모든 행정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세금을 걷어갔고, 예수님 당시 유대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헤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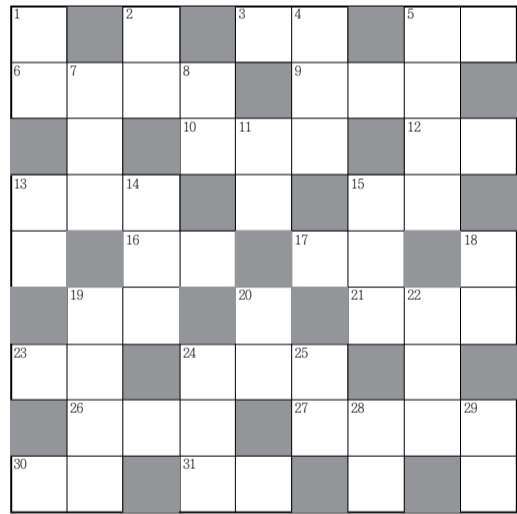


으로 팔기도 하고, 그것도 안되면 스스로 몸을 파는 인생막장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종과 주인, 빛진 종에 대한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구릉에서 산상보훈 설교를 하실 때, 그 당시 청중들이 유대인들 95%는 문맹이었다. 소수의 귀족들, 서기관들, 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 유대인 너희들은 기도의 내용부터 이방인들(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단 기도의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우선순위가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당장 내일 끼니가 걱정된 가난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장남이 아버지의 일을 돕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래된 전통이었

## 십자말 • Cross Word (109)

김기호 장로(본지 교분)



### <가로 푸는 열쇠>

3. 벗, 친구, 북한 동포들이 잘 씀.
5. 비라도의 관직(스5:3).
6.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함(창17:5).
9. 레위지파 고핫의 손자(출6:22).
10.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된 자(행1:26).
12. 많은 병사의 군대(왕하18:17).
13. 납달리 족속의 성읍(수19:36).
15. 높은 벼슬아치의 집에서 주인을 섬기던 사람(창14:15).
16. 에셀의 자녀(창36:27).
17. 넓은 들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출3:1).
19. 우아한 노래, 고상한 노래, 구약 중의 한 권.
21. 모세시대의 스블론 사람인 엘리사의 아버지(민34:25).
23.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여이엘의 아들 마야가의 소생이다(대상8:31).
24. 오리과에 속하는 새로, 가을에 오고 봄에 가는 철새.
26. 베냐민의 자손(대상7:10).
27. 아론의 장인(출6:23).
30. 아프리카 남쪽의 늪에서 서식하는 큰 짐승. 물말?(욥40:15).
31. 납달리 지파 아비노담의 아들(삿4:6).

### <세로 푸는 열쇠>

1. 사나 아이(욥3:3).
2. 한 세겔의 20분지 1에 해당하고, 또 0.57g으로서 중량의 제일 작은 단위(출30:13).
4. 소아시아 서북부에 있는 한 도이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시에 이곳을 통과했다(행16:8).
5. 대신들 중의 우두머리(대하28:7).
7. 에스겔의 계획한 실지(失地) 회복의 땅 경계지(겔47:16).
8. 납달리의 성읍(수19:35).
11. 그들오벨과 동행한 고임 왕이다(창14:1).
13. 아담의 둘째 아들, 가인의 동생(창4:2).
14. 다윗의 30용사 중 엘리엘의 고향이다(삼하10:6).
15. 예수님 때에 유대의 대사장. 전 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요 사두개교인(마26).
18. 아르바의 아들(신1:28).
19.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판 은30냥으로 산 밭, 피밭(행1:19).
20. 열매즙, 열매간(삼상17:25).
22. 실로의 북편에 있는 성읍(삿21:19).
24. 이스라엘 사람으로 느디안 사람의 두목(느11:21).
25. 팔레스타인의 한 지명(삼하2:24).
28. 맛을 느껴서 아는 감각(욥6:30).
29. 남에게 받은 예를 도로 갚는 일(대하9:12).

### 십자말 정답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96-5770 서울시 동양구 망우동 340-1(131-231)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침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금요침야: 오후 9:00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6 00175 ROMA, ITALY	<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침야)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 오전 5:00 새벽예배: 오전 6:30 Tel. (02)2-2648-3191~3, (02)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사당2동 520 (15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www.seongsil.or.kr Tel. (02)2-996-996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43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토요일은 없니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매일) 금요침야: 오전 6:00(매일)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구 구로동 17길 29(신길동)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00 Tel. (02)2-786-6579, 새벽 (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b>안암 제일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침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2-5511 서울 용매동 제기동 146-7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양곡구 양곡로 415 www.yangkg.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금요침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시 이천동 302-67 (140-031)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99)

###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23)



정 신 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 철학적 기초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기초들 중에서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기초들과 신학적 기초들에 대해 이미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오늘 이야기부터는 한인교회를 위한 철학적 기초들(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철학이라는 단어를 대하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내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철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 자체가 "너무 멀다, 너무 무겁다, 혹은 너무 어렵다" 이기 때문일 것입니다(이에 앞으로 이어갈 이야기들을 통해 철학을 보다 가깝게, 친숙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즉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 혹은 전 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들을 도출해내는 근거가 무엇이나에 따라 그 철학의 색이 정해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누구나 철학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철학이라 부르지 않았을지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삶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 중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폭넓게 표현하면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각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혹은 답을 찾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해답이 도출되기까지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라는 답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역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역자들 자신들은 어쩌면 자신의 철학이 무엇인지 또한 그에 바탕하여 도출된 교육철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리된 바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철학의 기본적인 질문과 대답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자기 자신의 삶의 철학과 교육철학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삶의 철학과 이에 기반한 교육철학은 교육에 대한 직접적 함의들을 제시하고, 실제적 교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이것은 피교육자의 인생을 향한 교육 결과들과도 직결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무엇이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올바른 철학적 기초인지, 어떠한 철학적 기초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이유가 있는 것

### 성경적 세계관 및 인생관에 근거한 '성경적 교육관' 의미 삶에 의한 기본적인 질문 3가지는 형이상학, 인식론, 가치

니다. 맞습니다. 유구한 철학의 역사에서, 발음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이름의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들 중 의견을 같이하는 이들끼리 합쳐 만들어낸, 다 기억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철학사조들이 있었고, 또한 그 위에서 그들이 쏟아낸 수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관념적 표현들과 수많은 철학용어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철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방대하고 엄두가 나지 않는 듯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철학을 이해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한인 교회의 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를 살펴본다고 하면, 어쩌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을 만큼 어렵다고 여겨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철학이란 것이 꼭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일단 모든 철학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신학사조들과 그들의 대표적 사상들과 난무하는 철학 용어들을 모두 다 알고 이해하고 또 기억해야만 철학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소위 "철학적"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적으로 철학을 "학문"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선 그러한 부담부터 먼저 벗어나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학문의 이름만이 아니며 또한 그것과 상관없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이란 간단히 말한다면 세계관 혹은 인생관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를 그 사람의 "인간에 대한 철학" 혹은 "인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도출 근거가 성경에 바탕한 것이라면, 이 사람의 "인간관(인간에 대한 전반적 생각)," 혹은 "인간에 대한 철학"은 "성경적" 인간관 혹은 인간에 대한 "성경적" 철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그 질문이 "교육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어떤 지식 등을) 알 수 있게 되는가,"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가" 등과 같이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구체화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대답들은 그 질문자의 삶에 대한 전반적 생각이 근거하여 도출이 되며 또한 그 대답들이 질문자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 생각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 질문자의 "교육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인가"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전반적인 삶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는 "교육이 무엇인가"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간관은 그 인간을 교육하는 교육관의 기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이겠지요. 이러한 것이 철학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명한 철학자들만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며, 학문으로서의 철학에 근거해야만 철학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들 한사람 한사람 모두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철학에 바탕한 교육

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분명히 정리하여 가지고 있어야 할 한인교회를 위한 철학적 기초는 "성경적 세계관 및 인생관에 근거한 성경적 교육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먼저 성경적인 세계관에 근거하여 대답을 주어야 하는 삶의 기본적인 질문들과 교육자들의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역자들 자신의 철학 및 교육철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철학적 담론들을 살펴보면, 세속적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철학 즉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그러한 교육관은 어떠한 것인지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은 철학을 하는 학자들이 오랜 동안의 철학적 사고의 역사를 통해 세 가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형이상학(Metaphysics), 인식론(Epistemology), 그리고 가치(Axiology)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들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형이상학은 "실제로 실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형이상학은 몇 가지 하부 질문들이 있는데, 이는 신학 또는 신론(Theology), 인간론(Anthropology), 존재론(Ontology), 그리고 우주론(Cosmology) 등입니다. (16면으로 계속)

##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 월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삼상17:48-49)

믿음의 한사람 다윗으로 인해서 골리앗 앞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됐습니까? 늘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이스라엘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는 소속의식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싸우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해서 싸운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쟁에 지고이기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결론은 완전히 승리하기까지 믿음을 행동으로 즉시 옮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믿은 대로 즉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화 그 칼로 그를 죽이고(삼상17:50-58)

오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는 방패막이가 나오고 뒤에는 골리앗이 따라오고 정 말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골리앗은 어깨와 머리만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키가 커서 방패가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주 쉽게 둘 하나로 머리를 명중시켜서 박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직접 행동으로 옮길 때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입니다. 그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수3:14)여호수아가 마음에 준비를 다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도 했지만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자마자 요단강이 마른 땅같이 갈라져서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 수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삼상18:1-5)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 사울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자신이 어디 출신인지를 겸손하게 밝힙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용맹함에 반했는데 그 겸손함에 더욱 반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다윗은 사울왕을 모시는 신하가 되고 군대 대장이 되게 했는데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가운데 가장 잊지 못할 신

앙 안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보고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될 때 주님의 인격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좋은 친구가 되어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 목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삼상18:1)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참으로 좋은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서 진정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친구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운데서 만나는 친구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음이 연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전인격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became one in Spirit). 그러니까 상대방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고 그 신앙이 나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신앙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요나단이 나는 더 많았지만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의 신앙을 더 존경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 금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삼상18:2-3)

좋은 친구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본문 3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순수하게 맺어진 친구는 오래갑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사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만났는지 그리고 서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지 그리고 친구가 됐으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상

대방의 약점이 보일지라도 내가 덮어주고 어려울 때 내가 더욱 힘이 돼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좋은 친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 토 겺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삼상18:4-5)

오늘 살펴볼 것은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미천한 목동인데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의 신앙을 더 존경해서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생생같이 사랑한 것입니다. 좋은 친구관계는 아주 순수합니다. 경쟁이나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앞서서 군사 한명과 함께 블레셋을 직접 쳐들어가서 무찌르고 크게 승리를 거둔 용사입니다. 그

리고 왕의 아들이요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천한 목동이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골리앗 한사람 물리친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단은 자기의 입었던 겺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벗어주었습니다. 당시에 옷과 칼을 준다는 것은 자기 지위와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 히브리어·헬라이어 원문번역성경 (신약)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번역·주석 고영민  
(前 백석문화대 총장)

히브리어·헬라이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 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聖經 翻譯의 決定版!**  
새 시대, 현대 신앙인을 위해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체계적인 기획 하에 출간된 **劃期的 力作!**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나갈 성경 주석의 **源泉의 寶庫!**

#### •본서의 12가지 특장

1. 전통적, 성경적 해석 원리에 의한 주석
2. 성경 해석의 기본 체재를 삼위일체식으로 강해
3. 원문을 축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 수용 언어로 알기 쉽게 전달
4. 신학의 학문성과 주석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높임
5.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성경적으로 평가, 결론 내림
6. 구속사의 맥을 따라 원어와 문장 등을 명확하게 설명
7. 성경 시대의 배경들을 입중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 인용
8. 성경의 기본 자료인 고대 사본들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
9. 성경 지리와 고고학, 문화, 풍습 등을 현장 답사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
10. 원어와 동의어, 반대어, 동음이의어를 상세히 기술
11. 성경 본문을 성경연구와 설교준비를 위해 내용별로 분해
12. 43개 번역본들을 통해 성경의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제시

목회자, 신학생, 성경연구자! 평신도 필독서!





## 고난의 신학: 용기에 대한 묵상 (3)

**이승현 박사**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총장)



### 보상 없는 신앙

용은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온전하고 올바른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보도한다. 타고난 성품인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훈련시켜서 얻은 노력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인격과 신앙이 아주 훌륭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격과 더불어 그는 당대의 갑부였다. 유복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누리고 있었다(자녀의 복과

의 표현으로 용의 친구 빌닷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물질적인 증거가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새로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셨다. 창과 못 자국을 보여주시며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 부분들을 만지게 하셨다. 그들과 식사를 하며 친교를 통해 영만의 부활이 아닌 육체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다. 따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용이 신앙의 열심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한국 속담이 있듯이 사탄은 용이라는 인물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나 용의 경외에 대한 진정한 의도가 결코 순전히 용을 보편적인 인간의 속성에 근거해서 판단한다. 믿음과 축복을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로 연결시킨다면 사탄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보상이 용의 영성의 궁극적인 이유라고 밝힌 것이다. 우

는 이들을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나는 본다. 사드락, 메삭, 아베니고는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3:17-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음 앞에서 신실함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들의 신실함은 왕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에 사용된다. 구원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들의 굳건한 고백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사도 바울의 회심도 스테반의 순교와 무관하지 않음은 스테반의 순교전 고백에서 볼 수 있다. 그를 돌로 쳐 죽이려는 이들 앞에서 스테반 집사는 예수님을 의로

## 용기는 인간의 형통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질문 믿는 이의 고난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길

재물의 축복). 용을 아는 이들은 그의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칭송했을 것이고 그의 인격과 더불어 그의 부에 감탄했을 것이다. 인격/신앙과 부의 상관관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공의로 우심의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며 용의 이러한 예로 수많은 이들의 입에 올랐을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한다(11장 1절).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눈에 보이고 만져서 느낄 수 있는 증거들을 추구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갈급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노력과 신앙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에 대한 안심을 받기를 원한다. 자녀와 물질의 축복은 구약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면 받을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예로 신명기 28장). 우리가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용기 8장 7절의 말씀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장대하리라"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따르는 이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

라서 하나님의 축복도 영적인 형태뿐만이 아닌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남은 분명하다. 그러나 물질적인 증거에 의존한 신앙은 세상에 모든 존재가 겪는 변화와 변형에 종속되며 변질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 물질적인 축복에 기대는 신앙은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전락할 수 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용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비방한다. "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1장9절). 히브리서 원본을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용이 하나님을 공짜로 두려워하겠습니까?"라고 사탄은 하나님께 질문한다. 여기서 공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דמי**인데 영어로는 흔히 free of charge 아니면 complimentary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용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데 사탄은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결코 이해타산이 없는 관계가 아님을 지적한 것이다. 사탄은 용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을 누리 고 있는 이임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도 이러한

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의 모습이다. 축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바라보는 신앙, 보상을 근거로 한 경외를 사탄은 너무 흔하게 보아왔으므로 용의 신앙도 이러한 빛바랜, 회의적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다. 따라서 사탄의 질문은 실존적인 질문이다.

과연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왜 따르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사탄은 인간의 신앙심(종교성)이 결코 자기이의 및 보전이라는 욕망을 초월하지 못하며 하나님조차도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방하고 있는 것이다.

용을 신뢰하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논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의로우심을 질문하지만 용기는 반대로 인간의 형통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질문한다. 그리고 믿는 이의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있다. 순교자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목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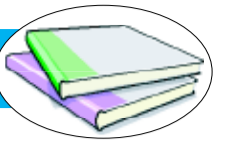
운 자로 담대히 고백한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도 스테반과 같이 순교를 당한 이들을 본인과 동일시 하시면서 사울이 핍박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삼키시킨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또는 행복) 있는 자라 말한다. 참으로 역설적인 가르침이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격려"이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천국이 의로 인하여 핍박은 받는 자의 것이라고 명시하셨다(마 5:10). 여기서 의는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용의 고난 같은 이유 없는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이며 주께서도 인정하고 아시는 고난이라는 해석은 위와 같은 신학 말씀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한다.

\*용에 대한 사탄의 비방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의 비방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방임을 지적하신다(용기3장3절).

이메일: james.lee@itsla.edu

## 새 책 소개



### "한국선교의 반성과 혁신"

저자 한국세계선교사회

2015년 현재 전 세계에 파송된 26,677명 한인선교사들의 유일한 대표기구인 한국세계선교사회(KWMF)에서 엮은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이 예영 B&P에서 출판됐다. 본 서적은 학술적인 논문이라기보다는 한국 선교에 대한 진솔한 평가이며 미래 각성을 위한 한국 선교사 시니어 그룹의 의뢰이자,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소리가



다. KWMF회장단은 발간사에서 "이 책자를 통해 한국교회 선교가 현장 선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내는 선교사와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진솔한 소통을 통해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맡겨준 선교를 좀 더

### 한국 선교에 대한 진솔한 평가...

### 미래 각성을 위한 현장 선교사들의 목소리

겸손하고,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본 서적은 KWMF 소개, 연혁, 역대 회장단, 조적이 소개돼 있으며 집필진으로는 박기호 교수, 비릇 이재환, 임종표, 김연수 선교사가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에 대해, 이윤식, 임민희, 한치완 선교사가 △교회개혁에 대해, 강성일, 강성철, 이교성, 전호진 선교사가 △신학교 사역에 대해, 윤순재, 이용규, 정금태, 정석천, 홍화옥 선교사가 △교육 선교에 대해, 김경일, 박화복, 이준재, 정형남 선교사가 △창의적 접근지역에 대해, 김정환, 문누가 선교사가 △전문인 선교에 대해, 김선웅, 안성원, 이승일 선교사가 △현직 선교개혁에 대해, 김신숙, 소평순 선교사가 △여성 선교에 대해, 김삼성, 백운영, 정성현 선교사가 △차세대 선교동원에 대해, 조용성, 한도수 선교사가 △선교 연구와 개발에 대해, 김만섭, 함태경 선교사가 △미디어 선교에 대해, 김종국, 한정국, 남후수 선교사가 △부록 등의 색인에 글을 썼다.

본 서적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출판됐지만 미주지역에서는 비매 품으로 입수됐다.

책구입에 대한 문의는 세계한인선교사회(KWMF) 사무차장 김경일 목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문의: (213)507-3875

(박준호 기자)

(15면에서 계속)

또 인식론은 "무엇이 진리이며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질문입니다. 또한 가치론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가치론은 주로 윤리학(Ethics)과 미학(Aesthetics)으로 분야를 나누어 질문되곤 합니다.

교육에 대한 질문들은 노르만 드용(Norman DeJong)이라는 교육학자가 그의 책 '진리의 교육'(Education in the Truth)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총 6개의 질문들이 있는데 사실 모든 질문들을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질문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모든 인간 사고의 기반 및 토대는 무엇인가(Base or authority)"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 본질은 무엇인가(Nature of persons)"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Purposes and goals)". 네 번째는 "어떤 구조와 기관을 통해 교육을 행할 것인가(Structural organization)". 다섯 번째는 "어떤 교육자료, 교육기자재, 그리고 교육방법들을 사용할 것인가(Implementation: resources, tools, and methods)". 마지막은 "교육이 잘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Evaluation)"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위에서 열거한 질문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http://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O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http://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 BA in Music 음악
-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 MA in Music 음악석사
-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 M.Div 신학석사
- MBA 경영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mailto:wdc@midwest.edu)